



냉전기 한국 라디오 수신기의 생산과 보급

장영민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 ymchang@sangji.ac.kr

이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라디오 수신기의 보급과 생산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라디오 방송의 대중매체화와 전자공업의 초기단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수신기는 5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보급되어 60년대 전반에는 100만 대를 돌파하였다. 특히 천우사는 1957년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한국에서는 최초로 수신기를 대량생산하였다. 이듬해에는 단순한 부품이더라도 국산을 사용하였고, “chunu”라는 자사 영문 명패를 붙인 수신기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비록 주요부품이 외국산일지라도, 최초의 국산 라디오 수신기라고 할 수 있다. 1958년 10월에 설립된 금성사도 수신기 개발과 생산을 지속함으로써 수신기의 대량보급과 전자산업을 선도하였다. 공보실과 주한 미국공보원 같은 한·미 정부기관은 라디오 방송을 반공, 친미, 정권강화의 선전매체로 중시하였으므로, 수신기 생산과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OECD도 외국산 부품수입에 소요되는 달러 불하의 제한을 완화하였고, 저가 수신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수신기 생산을 새로운 산업으로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관세 등 부품 수입비용이 과다하였으므로, 천우사나 금성사는 수신기 소매가를 10,000환 이하로 낮출 수 없었다. 결국 미국 원조기관은 저가 수신기를 대량생산하여 보급한다는 계획을 포기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수신기 생산, 그에서 비롯된 전자공업은 한·미 정부의 지원을 별로 받지 못하고, 거의 자력으로 첫걸음을 떼었다.

핵심어

방송 · 라디오 · 수신기 · 천우사 · 금성사 · 전자공업 · 냉전 · 선전 · 미국공보원 · 오이씨 · 유숨

1. 머리말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전반까지 약 10년 사이에 한국 라디오 방송은 현대적 대중매체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50년대에는 스튜디오와 송신기 등 방송 설비, 편성과 프로그램, 제도와 운영 등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큼 발전하였다. 그러나 방송 청취자가 극히 적었고, 그나마 도시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방송 서비스 확장에 중대한 한계였다. 국내에서는 라디오 수신기를 생산하지 못하였고, 외제 수신기는 고가의 사치품이라서 소수 중상층만이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60년대 전반에 이르러서는 수신기의 대량생산과 보급으로 이런 장애가 극복됨으로써 ‘라디오 전성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처럼 라디오 수신기의 보급과 생산은 방송사의 중요한 과제임에도 극소수 연구(김영희, 2009, 225~9, 314~8쪽; 윤상길, 2011a)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볼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또한 자료 발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깊이 있는 연구가 나오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무엇보다 새로운 자료를 다수 수집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이용하여 수신기의 보급 실태와 대량생산의 초기단계를 고찰함으로써, 라디오 방송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미디어로 정착하고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계기와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미 양국 정부기관의 관련 정책이 친미와 반공과 정권 선전의 강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된 사실을 주목한다. 여기에서 한국 라디오 방송사의 특성이 드러날 것이다.

1950년대에는 라디오 수신기의 보급, 분포, 종류, 사양, 성능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매우 드물다. 50년대 후반 보급 대수를 정리한 『한국방송사』가 있으나(한국방송공사, 1977, 247~52쪽),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 또한 공보실이 각도에서 조사한 수신기 대수를 발표하였고, 내무부 통계국의 통계연감에도 집계가 되었고, KBS 방송문화연구실을 비롯해서 농협과 문화공보부 등이 조사한 결과 등이 남아있다. 김영희의 연구에는 이런 자료가 충

분히 활용되었다. 이렇게 공개된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충분히 보장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본 연구도 정확성과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는 자료일지라도, 선행연구성과에 추가한다는 뜻에서 미국정부문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찾았다. 이렇게 얻은 수치를 기존 자료와 비교하고 조사 방법과 상황을 참작하면서 정확한 대수를 추산하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부정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보급 실태와 추세를 어느 정도 알아야 당시 청취권역, 청취자, 편성과 프로그램, 방송 효과, 방송문화 등 방송 전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수신기 부족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은 한국 기업이 라디오 수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저가로 판매하는 것이었다. 당시 수신기의 생산과 보급은 기술이나 경제적으로나 시도하기조차 힘든 현실이었다. 그래도 50년대 후반에는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기업계, 한국 및 미국 정부기관의 일각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기업의 도전과 성공은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수신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한 대중은 수신기 생산과 보급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한국전자산업의 출발점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¹

그렇지만 수신기 생산에 관한 체계적이며 충실한 연구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금성사가 최초로 국산 라디오를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용하거나 라디오상점과 수리기술자의 에피소드를 기록한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저술이 대부분이다. 금성사의 사사는(금성사, 1985; LG, 1997) 자사 위주로 자세하게 서술되었으나, 금성사 외에도 당시 업계의 경영, 생산과 판매, 제품 자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의외로 신문기사에서도 가치 있는 자료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상세하지도 않은 짧은 글이라도, 수신기 생산과 기업에 관련된 현황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본고가 이용한 대부

1 한국산업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매일경제신문』의 ‘산업인맥’ 시리즈는 전자공업은 “TV 방송의 개국으로부터 58년 국내 최초의 라디오생산에서 기원”하였다(산업인맥, (1976.4.15.). 『매일경제신문』, 4).

분 자료는 미국 정부기관, 특히 주한 미국공보원과 원조기관이 작성한 문서이다. 한국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담고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특정한 자료의 편중이 초래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정부 문서를 비롯한 한국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연구의 한계이다. 천우사가 한국 최초로 라디오 수신기를 대량생산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천우사의 수신기 생산에 관한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연구의 허점이다.

연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가능한 한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의 추가 발굴, 조사방법의 검토나 자료의 교차분석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으며, 한국인이 생산하고 보존한 자료는 더욱 희귀하다. 본고는 유엔군사령부 경제조정실(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OEC) 같은 원조기관의 기록에서 라디오 수신기의 보급과 생산에 관련된 자료를 일부만 찾아냈을 뿐이다. 향후 연구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국내 기관이 수집해온 미국 국가문서기록관리청(NARA)의 방대한 문서를 샅샅이 찾는 데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록물 중에서도 구호와 전재복구, 경제적 원조와 산업육성을 총괄한 국제협력처(ICA) 같은 미국 원조기관이 생산한 문서군(Record Group) 286과 469의 문서는 매우 중요하다.

2. 수신기의 보급과 한·미 정부의 정책

가. 수신기 보급의 실태

미국은 군정기와 전쟁기에는 중요한 선전매체인 라디오 방송이 낮은 수신기 보급률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저가 수신기를 수입하여 주요 기관과 인사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심리전의 긴급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신기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마

땅한 방법이나 재원을 찾지 못하였다. 대다수 수신기는 전기용이었는데, 전력난은 제한송전을 하더라도 심각하였다. 많지는 않았더라도 직류 수신기를 사용하는 청취자는 건전지를 구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더구나 가난한 농촌과 도시 주민이 수신기를 구매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쌌다. 따라서 수신기 보급률은 미미하기 그지없었다. 정전 후 1954년 미국공보원은 수신기는 약 45,000대, 청취자는 40만 명으로 추산하였다.² 심지어 OEC는 작동하는 라디오 수신기의 90%는 미군이나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방송을 해보았자, 미국인만 방송을 청취할 것이고, 한국정부는 대외방송에 치중하며 국내 청취자는 거의 안중에 없다고 단정하였다.³ 또한 한국정부도 방송 출력이 약하므로 수신기를 보급하더라도 사람들이 일본 방송이나 다른 나라 방송을 더 들을 것이라고 간주하여 수신기 보급에 별로 관심 없다는 인상을 주었다.⁴

1955년에 이르면, 전쟁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경제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방송과 영화 같은 대중매체를 접하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고, 대중문화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였다. 1956년 10월에 전과를 탄 <청실홍실>을 비롯한 다수의 방송극이 큰 인기를 얻었고, 주제가도 유행하였고, 영화까지 제작되었다. 이 시기에 방송은 대중문화를 이끌며 통합 문화매체로서 자리를 잡아나갔다(주창윤, 2015, 145~82쪽). 또한 이즈음 KBS는 100Kw 송신기 설치, 전일방송과 제2방송의 실시, 편성의 대대적인 개편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으로 방송 서비스를 일신하였다. 자연히 라디오 수신기의 수요와 공급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하였다.

2 S-41 A country-by-country Appraisal of VOA Broadcasting to the Far East and Middle East, p5(RG 306, Special ("S") Reports of the Office of Research, 1953-63, Box 9).

3 Report of Survey and Recommendations for Technical Information Program in Korea(RG 469, Korea Subject Files, 1953-59, 1955, Box 36).

4 Office Memorandum, from Mr. Albert A. Nicolay to Mr. Don Gledhill, August 7, 1959, subject: Radio Broadcast Fac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118).

이런 추세가 뚜렷해지자 낮은 수신기 보급률과 그에 따른 저조한 선전 효과 때문에 정전 직후부터 방송을 경시하였던 미국 선전기관은 방송을 다시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 4월 미국공보처(USIA)는 주한 미국공보원의 요청에 따라서 오랫동안 공석이던 방송 담당관으로 존 커티스(John Curtis)를 한국에 파견하였다. 그는 1년이 넘는 재임 기간에 라디오는 물론 갖출범한 텔레비전 방송을 대한선전에 이용하려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관심 중 한 가지는 수신기 보급 실태였으나, 한국정부나 KBS가 제대로 조사한 바가 없었으므로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는 각종 자료를 통해서 보급 대수를 5만대에서 25만대 사이로 대충 어림잡았다.⁵ 그중에서 미군 심리전 부대가 추산하는 163,000대가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커티스는 향후 수신기 보급률은 의심할 것도 없이 가파르게 상승하리라고 전망하였다. 비록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지라도, 한국정부의 외제 라디오 수신기의 수입 노력, 미군 PX와 밀수 등 불법적인 보급 통로의 존재, 텔레비전 방송의 개시 등 전문가로서 방송이 대중매체로 정착해 나가는 현상을 목격하고 판단한 결과였다.

1957년 4월 7일 『연합신문』은 공보실의 발표를 인용하여 라디오 수신기가 279,062대이며, 공보실은 청취자를 약 137만 명으로 추산한다고 보도하였다.⁶ 서울이 94,178대로 거의 1/3을 차지하였고, 경기 35,802대, 충남 18,520대, 전남 28,284대, 전북 18,078대, 부산을 포함한 경남이 45,316대, 경북 24,104대, 충북과 제주가 각각 6천여 대로 가장 적었다. 도별로 제시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행정기관이 조사한 듯하다. 이보다 몇 개월 뒤인 1957년 하반기 해외시장을 노리는 미국기업의 요청을 받은 국무부가 각국에 주재하는 공보원에 라

5 Foreign Service Despatch, from USIS-Korea to USIA-Washington, No. 27, November 5, 1956, subject: Report on USIS-Korea Radio-Television Activities(RG 306, IOP/RP, Lot 67D628, Latin America and Canada thru Far East, 1954-1956, Box 351).

6 Public Info, in S.Korea(RG 306, Office of Policy and Research/Program Analysis Staff, Records Relating to Worldwide Radio Developments, 1954-1963, Box 7).

디오, 텔레비전, 전자부품의 시장 실태를 보고하라는 지시하였다.⁷ 이에 따라서 미국대사관이 한국 시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로는 라디오 수신기가 최소한 165,000대가 보급되었다.⁸ 도별로 조사한 것보다 115,000대가량 적은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후자는 개인 보유 조사가 아니라 판매점과 수리점, 미군 PX, 수입부품의 분량과 액수 등을 통해서 조사하고 추정된 것이 주된 자료가 되었다. 설명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므로 정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하지만, 실제 보급 대수보다는 적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미국대사관의 시장조사보고서는 당시 수신기와 부품의 수입과 거래 현황도 말해준다. 두 품목의 공식적인 수입액은 1955년 15만 달러, 56년 7만8천 달러, 57년(1~8월) 10만5천 달러였다. 부품의 약 90%는 미국산이며, 일본과 유럽 제품이 각각 5%씩을 점하였다. 합법적인 경로로 들어오는 수신기 중 약 70%는 상업적 수입품, 15%는 PX와 미군 개인의 판매품, 10%는 미군의 잉여물자 판매품, 나머지는 한국인 해외여행자의 반입품으로 보였다. 매일 라디오 수신기가 450대가량(대개 5구 수신기) 거래되며, 라디오 겸용 전축이 50대, 전용 전축 100대, 텔레비전 수상기 3대가 판매되었다. 일 년에 라디오 수신기가 16만 대 이상, 최소한 10만 대 이상 증가한다고 추산할 수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폭은 더 커졌을 것이다.

1958년 8월에 작성된 미국공보원 문서는 KBS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225,000대라고 하였다.⁹ 당시 인구 100명당 1대꼴로 보급된 셈으로, 정전 후 대

7 Department of State Instruction, No. Ca-10832 June 20, 1957, subject: Short Market Survey on Radio Receivers, Television Receivers, and Components(RG 306, IOP/RP, Lot 67D628, Latin America and Canada thru Far East, 1954-1956, Box 351).

8 Foreign Service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429, January 7, 1958, subject: Short Market Survey on Radio Receivers, Television Receivers, and Components(RG 469, Office of the Far Eastern Operations, Korea Division, Box 4). 이하 Short Market Survey로 축약.

9 Briefing Paper: Radio Liste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ugust 19, 1958(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77).

대적으로 확충한 송신기 등 라디오 방송시설에 비하면, 지극히 빈약하고 불균형적인 보급률이었다. 미군 PX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한국인에게 넘어가는 수신기는 30~100달러 사이의 것으로 1954년 이래 115,000대에 이른다고 추산하였다. 그리고 1953년 이후 수신기와 부품의 수입액은 약 50만 달러로, 이 부품으로 조립 제작되거나 수입 완제품인 수신기를 약 25,000대로 잡았다. 나머지 약 9만 대의 수신기는 일제 밀수품이거나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것으로 추정하였다.

수신기의 지방 보급률은 현저히 낮았다. 1957년 1월과 2월 사이에 제주도의 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라디오 수신기 대수가 포함되었다.¹⁰ 모두 739대가 있었고, 그중 65%인 480대가 제주시에 분포하였다. 제주도민이 175,000명이었으므로, 237명당 1대가 보급된 꼴이었다. 청취자가 대당 5명, 대략 10~20가구당 1대가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군 PX에서 흘러나온 교류직류겸용 제니스 중단파 수신기가 가장 많았고, 절반은 1년도 되지 않은 신품이었다. 1958년 4월 경기도 광주군 32개 마을 2,204가구에 라디오 157대, 신문 정기구독 107건이 외부 소식을 전하였다.¹¹ 68.8가구로 이루어진 마을당 수신기는 4.9대, 14가구에 1대가 보급되었다. 대다수 소유자는 교사와 경찰, 그밖에 비농가였고, 라디오 소유와 신문 정기구독을 모두 하는 농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민간인이 집에 전기를 가설하고 전화를 소유한 경우도 전혀 없었다. 이곳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전형적인 농촌이라는 점이었으므로 일반적 농촌의 보급 실태로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1959년 1월 초순에 한국을 방문하여 미국공보원장과 라디오 수신기 보급 현황을 살펴본 미국의 소리 한국어방송과장은 수신기를 25만 대에서 27만 5

10 Foreign Service Despatch, from USIS-Korea to USIA-Washington, No. 6, August 27, 1957, subject: Analysis of a Survey of Radio Listening Habits of Cheju-Do Island Inhabitants(RG 306, Office of Policy and Research/Program Analysis Staff, Records relating to World Wide Radio Developments, 1954-1963, Box 7).

11 Kwangju Gun Survey, Publication in Community Development No.1, April, 1958, 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ion for Korea, UNC(RG 469, Korea Subject Files, 1953-59, Box 111).

천 대로 추산하였다.¹² 그러나 KBS 방송국장이 적어도 40만 대에 달한다고 주장하자, 그 과장은 기독교방송의 통계, 현재 진행 중인 KBS 방송문화연구소의 조사로 본다면, 40만 대가 합리적인 수치일 것이라고 의견을 바꾸었다. 『한국 방송사』는 1958년까지는 보급이 너무 미미하여 수신기 대수 조사조차도 없었으나, 이듬해는 319,000대를 넘어섰고, 1960년에는 42만여 대로 늘었다고 한다(한국방송공사, 1977, 249쪽). 조사 시점이 분명하지 않으나, 6월 1일 『동아일보』는 전국 라디오 수신기는 26만 대로 집계되었으나, 공보실은 약 35만 대로 추산한다고 보도하였다.¹³ 그리고 각도가 조사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보급상황이 처음으로 기재된 1960년 발행 통계연감에 따르면, 1959년 12월 말 현재 라디오는 전국에 414,685대, 서울에 112,085대가 보급되었다.¹⁴ 1960년 3월 미국 공보처 국제방송국은 60만 대라고 하였다.¹⁵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미국공보처 조사국은 대개 현지에 주재한 미국공보원이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또한 자체적 조사를 통해서 방송시설과 수신장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근거가 불확실 하더라도, 이런 조사 결과와 추정을 종합하면, 1959년은 20~40만 대, 60년은 40~60만 대가 보급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미국공보원은 주한미군의 모든 PX에서 판매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대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¹⁶ 1960년 1월 초에 확인한 결과 1958년 2월부

12 Memorandum, from IBS/RF-Wm. Kekich, Chief, Korean Service to IBS/RF-Mr. C. Stryker, Chief, Far East Division, February 23, 1959, Subject: Report on Area Reorientation Trip to Korea(RG 306, IOP/RF, Eastern Europe thru NE, SA, Africa, 1954-62, Box 354).

13 지지부진한 라디오 보급. (1959, 6, 1), 『동아일보』, 4.

14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 제7회, 1960년 9월 25일, 434쪽.

15 World Wide Distribution of Radio Receiver Sets, Office of Research and Analysis, R-11-60, March 2, 1960(RG 306, Master Budget Files, 1953-1964, Box 11).

16 Memorandum, from USIS Seoul to USIA Washington, January 11, 1960, subject: IBS: Radio and TV Receivers Distribution in ROK(RG 306, IOP/RF, Eastern Europe thru NE, SA, Africa, 1954-62 Box 354).

터 1959년 12월까지 라디오 수신기는 294,618대, 텔레비전 수상기는 3,204대가 미국인에게 팔렸다. 1959년 한 해 동안에 수신기는 184,364대, 수상기는 1,364대가 판매되었다. 이 자료 작성지는 라디오 수신기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1960년에는 5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천우사와 금성사가 매월 6,000대를 조립생산하고 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미군 PX에서 판매한 것 중에 몇 대가 한국인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실히 알 방법은 전혀 없지만, 대충이라도 짐작할 수는 있다. 당시 주한미군은 소수의 공군과 육군 4개 사단 병력 약 6만 명이 주둔하였고, 대사관과 원조기관 등에 민간인 수백 명이 근무하였으므로, 흔히 한국인 500명당 미국인 1명이 남한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만약 위의 통계가 정확한 것이고, 미국인 1명이 1대만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이 때 동안 판매된 294,618대 중 약 23만 대는 아마도 본래 소유자의 손을 떠났을 것이다. 한국인에 보급된 라디오 대다수는 PX에서 나왔다는 말은 직접적 근거가 불확실하지만, 미군과 수신기 보급은 불가분이었던 것은 분명하다.¹⁷

그리고 일제 라디오도 합법적 비합법적 통로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미국공보처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1959년 전년도의 두 배가 되는 1천만 대를 생산하였고, 그중 90%를 수출하였다.¹⁸ 1958년 한국에 98,000대를 수출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었고, 이듬해에는 208,000대를 수입하

17 당시 서울 충무로에 소재한 라디오 판매점 기쁜소리사는 “라디오 문화의 최고봉”이라고 자칭할 만큼, 미국 제니스, 독일 뢰베-오프타, 영국 부쉬 총대리점으로 각종 외제 수신기를 판매하던 대표적인 상점이었다. 그러다가 서독 수입 및 미군 PX 등에서 구입한 라디오 300여 대를 수입관세 포탈 및 밀수 혐의로 압수당하였고, 부사장이 장물취득혐의로 구속되었다(기쁜소리사 수사(1959.7.3). 「동아일보」, 3; 광고(1959.7.4). 「동아일보」, 3; 기쁜소리사 부사장 장물취득 혐의구속(1959.7.22). 「동아일보」, 3). 또한 50년대 말 신문에는 미군 부대나 PX에서 라디오를 절도한 사건 기사가 자주 게재되었고, 암시장에 관련된 미군 문서도 라디오를 흔히 언급하였다. 그러나 압수당한 한국 상인이 미군에게 사거나 선물을 받았다고 하며 빈번히 항의하던 일에서 보듯이, 모든 거래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18 Japanese Exports of Radio and Television, IRI/s, RO-41-60, May 25, 1960(RG 306, IOP/RP, Eastern Europe thru NE, SA, Africa, 1954-62, Box 354).

여 259,000대를 수입한 홍콩의 뒤를 이어 5대 수입국이 되었다. 미군 PX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측한 23만 대와 일제 수입품 30만 대를 합하면, 50만 대가 넘는 수신기가 2년 동안 한국으로 들어온 셈이었다. 그런데 일제 라디오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었으므로, 미군 PX에 납품된 다수는 일제였고, 그것이 대한수출통계로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 뒤에서 다루지만, 이 시기에 한국정부도 일본 라디오 수신기 1만 대를 수입하여 각 KBS 지방방송국을 통해서 농촌 마을에 무상으로 배부하였다(한국방송공사, 1977, 249쪽). 역시 정확한 숫자를 구하기는 어렵다.

1961, 62년도 통계연감에도 각종 방송 수신기는 대폭 증가하여 60년 말에는 420,414대, 61년 말에는 642,758대에 달하였다. 62년도 통계연감은 문화공보부가 61년 9월에 실시한 ‘전국홍보매개체실태조사’의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수신기 종류에 유선 스피커 107,740대, 광석라디오 51,689대, 그리고 기타 8,373대가 포함되었다. 60년 국제조사의 데이터는 100만 대에 가깝고, 방송문화연구소 통계는 78만 대 내외로 추산된다는 신문기사가 있으나,¹⁹ 초기 표본조사로 정확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보인다. 또한 미국공보처 감사관은 1955년 14만 대, 59년은 60만 대, 그리고 61년은 95만 대, 청취자 550만 명으로 추산하였다.²⁰

그리고 1962년 7월 공보부가 전국 90개 표본지역에서 4,500가구(응답지 회수는 3,99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공보부, 1962, 23~26, 215~219, 223~225, 259~268쪽)가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상의 34.99%인 1,392가구가 1,451대를 소유하였다. 따라서 전국 수신기 대수를 1,579,240대로 추계하였

19 퍼져가는 전파문화. (1961.12.3). 「동아일보」, 2; A Report of Radio Audience Survey(Part Two), May, 1960(RG 469, Korea Subject Files, 1950-61, Box 154). 방송문화연구소는 1960년 4월 서울을 제외한 전국 51곳에서 수신기 보급과 청취실태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는 2,467명이었고, 그 응답결과로 추정된 수신기는 780,989대였다. 여기에 서울을 더한다면, 대략 100만 대가 넘는다. 방송문화연구소는 광석식은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지방 조사는 정확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16개월 후 실시한 조사에는 스피커와 광석식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음에도, 각종 수신기는 64만여 대에 불과하였다.

20 Inspection Report, USIS Korea, November 24, 1961, p.17(RG 306, Inspection Report & Related Records, 1954-1962, Box 6).

다. 1963년 4월 각종 수신기는 1,431,708대에 달하였다는 통계가 있다(윤상길, 2011a, 227쪽). 1962년 것은 면 단위 이하 지역 거주자가 61%밖에 되지 않을 만큼 도시에 치우쳐 조사한 결과로 보급률이 높게 잡혔다는 한계가 있지만, 의미 있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었다. 첫째는 수신기를 마련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21.8%가 1961년, 32.9%가 1962년 상반기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은 트랜지스터라디오 비율이 19.9%, 스피커가 33.1%를 점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두 가지 비율은 상당히 정확한 추세를 보여준다. 즉 1960년대 초반 방송 수신기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고, 스피커와 트랜지스터라디오가 그 흐름을 주도하였다. 도시에서는 트랜지스터라디오가, 농어촌에서는 스피커가 주로 보급되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무선 라디오 수신기도 60만 대가 넘으며, 절반이 최신 생산 제품인 트랜지스터라디오라는 것은 수신기 생산과 보급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 조사에서는 국민 30.4%의 소식원은 아닌 타인으로부터 듣는다는 “전근대적인 퍼스날 커뮤니케이션”이지만, 라디오는 28.1%, 신문은 16.9%, 텔레비전은 0.2%로 나타났다. 행정단위 면에서는 라디오 28.6%, 신문 8.6%로 농촌지역에서, 낮은 학력에서는 라디오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였다. 이로만 보면, 매체로서 라디오가 신문을 역전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비슷한 시기의 다른 조사 결과들과 다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수신기 보급대수를 살펴보았으며, 그것을 다시 정리한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1961년까지만 하여도 다수의 통계 자료는 매우 혼란스럽고 부정확하다. 당시는 통계조사 방법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수신기까지 조사할 현실적 여건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자료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수신기 보급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앞으로 조사 통계를 더욱 수집하고 세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²¹

21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RG 306의 International Survey Research Reports(1954-1964) 시리즈에는 여론 및 매체 조사결과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표〉 연도별 수신기 보급대수

조사, 발표 연도	수신기(대)	자료 출처
1955년	14만	미국공보처 감사관 추산
1956년 11월	5~25만	미국공보원 보고
	16만 3천	미군 심리전부대
1957년 4월	279,062	공보실 발표(각도 조사)
1958년 1월	16만 5천	미국대사관
8월	22만 5천	KBS 조사
1959년 1월	25~27만 5천	미국의 소리 한국어과장
상동	40만	KBS 국장
6월	26만	『동아일보』
상동	35만	상동(공보실 추산)
12월	414,685	『대한민국통계연감』
	31만 9천	『한국방송사』
	60만	미국공보처 감사관 추산
1960년 4월	78만	방송문화연구실
12월	420,114	『대한민국통계연감』
1961년 12월	642,758 (유선 스피커 107,740대, 광석라디오 51,689대, 기타 8,373대 포함)	『대한민국통계연감』
1962년 7월	1,579,240 (유선 스피커 522,728대, 광석식 67,907대, 트랜지스터 314,269대)	『전국국민여론』
1963년 4월	1,431,708 (라디오 892,571대, 유선 스피커 539,137대, 앰프 2,348대)	『한국방송70년사』
1964년 1월	1,286,213 (유선 스피커 544,600대 포함)	문화공보부
10월	1,719,782 (유선 스피커 776,939대 포함)	한국방송사업협회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야 조사의 정확성을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 1964년 1월 문화공보부가 발표한 라디오는 1,286,213대였다.²² 이 통계는 동장과 이장 등이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이므로, 표본조사로 추계한 자료보다 좀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본다. 그런데 10개월 후에 나온 조사 결과와²³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후자는 문화공보부 집계보다 40여만 대가 더 많은 1,719,782대였다. 1월의 자료는 유선 스피커가 544,600대며, 10월의 자료는 776,939대였다. 각종 라디오 수신기는 전자가 약 68만 대, 후자는 약 94만 대였으므로, 10개월 사이에 26만 대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수신기 보급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추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6만 대라는 차이에 큰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통계의 변화로 본다면, 1963년에 이르러 각종 수신기가 100만 대 넘게 보급되었다. 앞에서 추산한 1960년 40~60만 대에서 1961~3년에 약 60여만 대의 라디오 수신기와 스피커가 증가한 셈이다. 1964년 연말인구는 2,796만 명, 1966년도 총인구는 2,920만 명이며, 세대수는 512만 세대였다.²⁴ 1964년 수신기 대수가 약 170만 대였으므로, 대략 16.4명과 3세대에 1대의 수신기가 보급된 셈이었다.

또한 광석검파기로 불릴 만큼 성능이 낮은 초기 라디오 수신기 종류인 광석수신기가 일제강점기부터 이때까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방송전파의 증폭 기능이 없어서 크리스털 리시버라는 이어폰으로 들어야 하였으나, 저렴한 부품에 전원이 불필요하였고,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제작을 쉽게 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 실정에서는 매우 유용하였다. 1958년 어린이과학교

2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제11회, 1964, 406쪽.

23 윤상길, 1960년대 한국 라디오 테크놀로지의 '부락화', 『한국 방송의 사회문화사: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방송학회, 2011, 221쪽. <표 6-3> 참고. 이 표는 한국방송사업협회가 펴낸 『방송연감 1965』의 자료로 작성된 것이다.

24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제14회, 1967, 인구추세, 시도별 가구증가율. 5년 단위로 실시된 총인구조사 통계로, 1964년에는 세대수가 조사되지 않았고, 연말인구만 실렸다.

육회가 서울시내 국민학교 900여 명 학생에게 자재를 무상으로 대여하며 라디오 제작 지도회를 개최하였다.²⁵ 미군 PX에서도 기념품으로 3달러에 팔렸다. 1958년 말에는 미도와 라디오부 박명진이라는 라디오 기술자가 일제 게르마늄 다이오드의 수입을 허가하고 OEC가 400만 원을 대출해준다면, 2,000세트를 제작하여 현재 소매가 2,800원보다 훨씬 저렴한 1,700원에 판매하겠다고 미국 공보원에 제안하기도 하였다.²⁶

판매 목적을 농촌의 문화계몽사업에 이바지한다고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광석수신기는 방송전파가 도달하는 비도시 지역에 적지 않게 보급되었다고 추측된다. 송신출력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마일을 커버하였다. 1959년 상반기 미도와 백화점 라디오부는 일제 부품으로 제작한 염가의 광석라디오를 월 200대 판매하였다.²⁷ 이로 보아 농촌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수요가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한 신문은 제대 장병의 일거리로 광석수신기 조립을 추천할²⁸ 만큼 수요가 컸던 것 같다. 부품 월가가 3,750원인데, 판매가격은 4,500원이므로 대당 930원이 남는다고 하였다. 광석수신기의 가격은 국산 라디오 수신기 가격의 약 10%에 불과하였고, 라디오 청취가 새로운 유행이었으므로 통계에 잡힌 5만여 대를 훨씬 상회하는 수신기가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5 어린이들에 과학교육. (1958.3.9). 「조선일보」, 3.

26 Memorandum, from George G. Wynne, Radio Officer to Mr. Henry F. Arnold, CPAO, December 17, 1958, subject: Production of Crystal Receivers(RG 469, ICA, Mission to Korea, Executive Office, Central Subject Files, 1950 - 1956, Box 118). 문교부는 이 제안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공보원에 전달하였던 것 같다.

27 Minutes of Meeting to discuss Korean Radio Receiver Manufacture Conducted Wednesday, 25 February, 1959(위와 같음).

28 남양에 맘모스 송신소(1962.5.13). 「경향신문」, 4.

나. 한국정부의 수신기 보급 정책

일반 대중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려던 주된 목적은 음악과 방송극에서 재미와 위안을 얻고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아는 것이었다. 반면 정부는 정전협정 직후부터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고, 내부적으로 반공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의지에서 방송시설 확충에 힘을 쏟았다. 뉴스와 교육을 통해서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는 목적도 중요하였다. 방송은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이 장기화할수록 국내 정치용으로도 요긴하였다. 이런 면에서 방송 효과를 거두려면 대전력 송신기 못지않게 라디오 수신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는 데는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라디오도 사치품으로 규정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던 빈곤한 처지였다. 미국 원조 기관 역시 수신기 완제품과 부품수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한국정부의 재원이나 원조달러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그러므로 비싼 외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라디오 수신기 보급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선거 선전에 라디오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외제 수신기 수입에 나섰다. 1956년 초 자유당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대한방송사업협회는 배터리나 교류로 작동하는 저렴한 미제 구형 수신기 10만 대의 구매를 도와달라고 미국공보원에 요청하였다.²⁹ 당시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³⁰ 대한방송사업협회는 라디오 수신

29 Official-Informal, from John P. McKnight, Public Affairs Officer,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to Mr. George Hellyer, Assistant Director for the Far East, USIA, February 16, 1956; Airmail, from John M. Begg, Deputy Chief, Office of Private Cooperation, USIA, to John P. McKnight, March 26, 1956(RG 306, Action copies of Telegram, Despatches, OMs, Incoming & Outgoing for Far East Countries 1956, Box 137).

30 맹점 편 88년도 무역계획. (1955.12.30). 「경향신문」, 1.

기 20만 대의 수입을 독점적으로 허가받고 정부 보유달러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대사관의 민정관은 수신기 보급은 미국도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본국 정부에 건의하였다. 협회는 미국공보원뿐 아니라 미국 RCA에도 구매 문의를 직접 하였으나,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는 미제 수신기를 살 수는 없었다. 그런데 1956년 11월 미국공보원은 KBS가 조기 납품받기로 하고 RCA와 건전지용 수신기 5,000대의 구매계약을 맺었다고 보고하였다.³¹ 여기서 KBS는 대한방송사업협회를 지칭하는 것이며, 아마 최초 구매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어도,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것 같다. 하지만 고가인 미국 제품이 실제로 수입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듬해에도 저가나 중고 수신기 5,000대를 구매하여 모든 행정단위의 공공장소에 비치하기로 계획하였다. 『한국방송사』는 1958년부터 공보실이 농촌에 수신기를 무상으로 배부하기 시작하여 전기식 2,800대, 전지식 7,200대 도합 10,000대를 배부하였다고 하였다(한국방송공사, 1977, 249~50쪽). 제4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1960년 2월과 3월에 무상 공급된 수신기는 4,920대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4·19혁명 후에 한국방송학회 부회장인 서울대 사대 교수 장운표는 앰프촌과 라디오 수신기를 세포방송조직으로 이용하였다고 비판하였다.³² 장면 정권도 라디오 수신기 배부를 계속하여 5·16쿠데타 직전까지 모두 17,420대에 이르렀다.

1957년부터는 마을 한 곳에 앰프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가구에 연결하는 유선방송이 시작되었다(한국방송공사, 1977, 252~4쪽; 윤상길, 2011a, 169~70쪽). 지속적인 앰프촌 확대 정책에 의하여 5·16쿠데타 전까지 400여 개의 앰프촌이 있었고, 가설된 스피커는 1만여 개에 이르렀고, 청취자는 4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유선방송은 개별 라디오 수신기로 자유롭게 방송국을 선택하여

31 Foreign Service Despatch, from USIS-Korea to USIA-Washington, No. 27, November 5, 1956, subject: Report on USIS-Korea Radio-Television Activities(RG 306, IOP/RP, Lot 67D628, Latin America and Canada thru Far East, 1954-1956, Box 351).

32 시청각교육으로서의 방송. (1960.10.17). 「경향신문」, 4.

듣는 무선방송 청취방법과는 다르지만, 사회적 문화적으로 고립성과 폐쇄성이 농후한 농촌에 외부 소식이 전파를 통해서 직접 전달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큰 변화였다. 또한 전선, 스피커, 손잡이 등의 부품 수요는 외국산 수입뿐 아니라 국내 생산도 촉진하였을 것이다.

제4대 대통령선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산 라디오를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해야 하며, 부속품까지도 순국산으로 충족시키라고 지시하였다.³³ 전해 12월 15일에 제작된 대한뉴스 제244호의 “최초의 국산라디오”를³⁴ 보고서 한 말일 수도 있으나, 대통령이 라디오 수신기 생산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 정부가 공급한 것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한 라디오 수신기였을 것이다. 1960년 3월 전성천 공보실장이 중앙청 앞마당에서 사진을 찍으며 경기도 지사에게 전달한 트랜지스터라디오 수신기도 일본 New Hope Industry Co., Ltd에서 만든 Fleetwood NTR-815 모델이었다.³⁵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던 대통령으로서는 라디오를 생산하지 못하여 귀한 달러로 일제를 사와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것에 상당히 난감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비싼 미제를 수입하기도 어려웠다.³⁶

33 발전에 만전토록. (1960.1.6). 「동아일보」, 1.

34 e영상역사관(<http://www.ehistory.go.kr>).

35 전달식 때 찍은 사진(‘전성천 공보실장 최현길 경기도지사에게 라디오 기증’,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촬영일자, 1960년 3월 8일, 장소, 중앙청,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ET0026279) 속의 수신기와 일치하는 모델을 www.pakratz.com에서 찾았고, 그 FleetWood NTR 시리즈가 일본 제품 브랜드라는 것은 www.radiomuseum.org에서 확인하였다.

36 1959년 가을 미국 ICA 통신매체과는 필코 사의 트랜지스터라디오 T-700 모델을 한국 USOM에 보내서 시험해 보도록 하였다. 필코는 OEC의 한국통신망의 복구와 확대 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한·미 정부의 라디오 수신기 보급 노력을 잘 알았을 것이다. USOM 통신과 과장은 성능은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만 40,000환 이상이 되는 사치품이므로 한국에서는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Official-Infomal, from Harry L. Carr to Dr. Gerald F. Winfield, Chief, Communications Staff, ICA, June 3, 1960(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147). OEC는 1959년 7월 1일부터 부서는 큰 변함없이 경제협조처(U.S. Operations Mission - USOM)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59년 12월 원조기관은 한국정부의 공보실이 라디오 방송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며, 아시아 10개국에 주재한 USOM에 라디오 방송과 수신기 보급 현황 등 정보를 보내 달라는 협조문을 전송하였다.³⁷ 이런 노력의 일환이 공보실이 이듬해 선거 직전에 내놓은 라디오 방송 4개년 계획이라고 짐작된다. 4개년 계획은 앰프론 설치, 수신기의 보급, 방송시설의 확장강화를 골자로 하였으나,³⁸ 수신기 보급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국내생산계획은 부재하였다.

다. 미국정부의 수신기 보급 정책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군은 라디오 수신기 보급률이 낮았던 남한 같은 점령지역에 저가 수신기를 수입하여 배포하였다. 1947년 12월까지 교류와 직류 라디오 수신기 각각 5천 대와 2만 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선적하였다.³⁹ 이른바 ‘정치교육 및 선전 강화 계획’에 입각한 것으로, 주로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던 군정과 반공 선전용 매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반도 분단의 현실화와 전 세계적인 냉전의 격화로, 라디오 방송은 선전매체로 더욱 중시되었다. 1948년 말 스미스-먼트 법(PL 402)의 제정 취지에 보듯이, 방송전파는 ‘철의 장막’을 넘을 수 있던 무기였으므로, 미국의 소리(VOA)는 강력한 방송망을 구축해 나갔고, 당연히 수신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대외선전을 담당하게 된 국무부는 저가 라디오 수신기를 보급하려는 정책을 1949년 10월부터 준비하였

37 Airgram, from USOM/Korea to ICA, 12/9/59, subject: Radio Broadcasting Information(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 - 1956, Box 116).

38 당국서 4개년계획추진. (1960.3.5). 「동아일보」, 4.

39 Memorandum for Record, SCAP, Civil Communications Section, 31 March 1948, subject: Status of Outstanding Spot Requirements Schedules for Korean Civilian Supply Requirements Concerning KBS(RG 331, Civil communication Section, Decimal & Subject file, 1945-51, Box 3163). 수입 일제 수신기는 상당수가 불량품이었으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다.⁴⁰ 우선 소련을 포함하여 유럽 각국에서 사용하는 라디오 수신기를 분석하고, 미국의 소리 전파를 잘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개발하고, 배포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1950년 상반기에는 NSC-68에 따른 대외선전정책인 ‘진실 캠페인(Campaign of Truth)’으로 방송선전은 한층 강화되었다.

국무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선전과 심리전의 필요성이 커지자, 한국을 비롯하여 공산주의의 위협 아래 놓여있다고 보는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저개발지역은 물론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에 저가 라디오 수신기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50년 대충자금 286만 달러로 세계 각국에 보급할 수신기 구매에 나섰다.⁴¹ 인도와 중동 제국에 보낼 60,000대는 네덜란드 필립스, 독일과 영국의 회사 중 아마도 필립스에서 구매할 것이라고 하였다. 필립스는 다른 유럽과 미국 회사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하였다.⁴² 또한 국무부의 제안에 따라서 제너럴 모터스와 RCA 같은 미국의 유수한 전자회사와 MIT 대학이 수신기 개발에 나섰다. RCA 사장 데이비드 사르노프(David Samoff)는 “수백만 명을 위한 라디오”라는 구호를 내걸고 저가 수신기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고, 미국정부와 약 3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다. 1950년 9월 국무부는 수신기 보급 선도사업으로 한국과 베트남에 2,750대의 미제 수신기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듬해 봄 긴급을 요한다는 주한 미국공보원의 요청에 따라서 2,650대의 일제 수신기를 한국으로 보냈다. 미국대사관

40 Memorandum, from IBD - Foy D. Kohler to IE - Charles M. Hulten, JUN 9 1951, subject: Special Receiver Project - Recommendations; Memorandum, from IBD/POB - Gillespie S. Evans to IBD - Mr. Foy D. Kohler, May 8, 1951, subject: Interim Report, “Receivers Projects”; Radio Receiver Distribution, Pilot Project: Final Report, September 20, 1951(RG 306, Misc. files of IBS, Director’s Office, Lot. 56D595, Box 202).

41 Radio Receivers Project, Department of State USIE PROGRAM, Reply to Senator McCarran’s Request of March 30, 1951(RG 59, Central Decimal Files, 1950-1954, Box 2240).

42 Memorandum, from IBD/POB - Gillespie S. Evans to IBD - Mr. Foy D. Kohler, May 8, 1951, subject: Interim Report, “Receivers Projects”(RG 306, Voice of America, Lot 55D209, Box 15). ; Radio Receiver Distribution, Pilot Project: Final Report, September 20, 1951(위와 같음).

과 공보원은 1951년에 5,000대의 수신기를 한국에 배포하였고, 유엔군사령부에 5,000대를 추가 도입하여 선전 효과를 높이라고 조언하였다.⁴³ 유엔군사령부도 동의하며 1952년 2월에 5,000대 공급을 요청하였다.

미국 국방부도 심리전, 선전의 수단으로 소형 라디오 수신기 개발에 직접 나섰다. 국방부는 1952년 2월 소형 소모형 라디오 수신기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도쿄 유엔군사령부에 전달하였다.⁴⁴ 목적은 적군 및 아군 지역에 라디오 청취자를 증가시켜 라디오 방송 심리전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었고, 개발 즉시 한국전쟁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한국전쟁용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심리전 무기’로 개발하는 것이었고, 사업 명칭도 “(군수)물자 연구개발 프로그램 (Mate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이었다. 그러나 한국 전선에는 이런 수신기가 보급된 적이 없었으므로, 계획이 무산된 것 같다. 일회용 수신기를 적지에 공중투하하겠다는 발상은 기발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되고 “기대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보급” 방법이었다. 국방부 심리전국은 이밖에도 영사기, 확성기, 녹음기, 텔레비전 등 심리전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역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행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전쟁 승리를 위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결속 심리전 매체로서 라디오의 중요성이 약해지지는 않았다.⁴⁵ 전쟁 중 KBS 방송시설의 복구와 강화를 통해서 출력은 강력해졌으나, 수신기 부족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수입부품을 조립하여 시장에 판매

43 Memorandum, from CINCUNC to DEPTAR WASH DC, NR. CX 52387, 221021Z JUL 52(RG 319, Office of the Chief of Civil Affairs, 1946 - 1965, Box 18).

44 Memorandum, Department of Defence, Office of the Psychological Warfare to Commander-in-Chief, FEC, PSYWAR 400(18 FEB 1952), subject: Mate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RG 554, General Correspondence, 1951 - 1952, Box 22).

45 Check Sheet, File No. AG 413.44(22 Apr 52) PWS, subject: Radio Receivers for ROK(RG 554, General Correspondence, 1951 - 1952, Box 23)

한다면, 가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여 실업자도 구제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구나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공산주의자들이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므로, 라디오 방송은 전후에 더욱 긴요한 매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라디오 수신기를 전혀 제작하지 못하였고, 일제나 미군 PX에서 유출된 것이 다수였다. 라디오 수리점에서 손으로 만든 조약한 코일 저항을 제외하고는 부품도 일본에서 밀수하였고, 또한 미군의 통신장비 부속품도 수신기 수리에 사용하던 실정이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에서 수입부품으로 조립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수신기를 싸게 대량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국정부의 공보처는 1952년 초에 방송시설 복구사업을 신청하면서 공보업무에 필요한 라디오 장비의 구매용으로 120만 달러를 요청하였다.⁴⁶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라디오 수신기를 조립하는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생산한 라디오 수신기를 각 동리에 배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상공부 관리를 비롯하여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단순한 광석라디오도 코일 같은 부품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청취에 필요한 헤드셋은 한 사람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안은 증폭기가 달린 라디오 수신기를 수입하는 길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보급을 확대할 현실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웠다.

반면 KBS 방송국을 통제하던 유엔군사령부 제4라디오방송중대 파견대는 한국은 저가 라디오 수신기를 조립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조립 인력 훈련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파견대는 현재 한국에서는 라디오 통을 나무로 제작하고, 조잡한 사시도 기계만 있다면 생산할 수 있고, 건전지

46 Consolidated Semi-Monthly Activities Report, 15 Feb 52(RG 338, Classified Command Report Files(1 Jan.-30 Dec, 1952, Box 5753); Consolidated Semi-Monthly Activities Report, 31 Mar 52(위와 같음); Memo to Chief PsyWar, HQ FEC, Psychological Warfare Section 9 May 1952, 300,6 Psychological Memorandums(RG 554, General Correspondence, 1951-1952, Box 10).

시험생산도 가능하다는 한국인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다. 단지 진공관, 저항기, 콘덴서 등 부품만 현지 제작이 어려울 따름이었다.⁴⁷ 이와 같은 제안에 따라서 미군은 한국 시장을 조사하였으나, 아마도 국내생산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것 같다. 대신 수신기를 대대적으로 보급할 길을 찾았지만, 5만 대를 구매할 자금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 주문과 선적 때 대금을 각각 50%씩 지불한다고 하여도, 한국 상대와 신용거래를 하겠다는 일본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그렇다고 원조기관인 CRIK과 UNKRA 자금을 이런 목적에 사용해서도 안 되었다. 그래서 1만 대의 수신기를 구매할 자금을 확보 방법을 합동경제위원회(CEB)를 통해서 찾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 결국 시장에서 직접 수신기를 구매하거나 제작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전쟁 중 반공 심리전 차원에서 제기된 라디오 수신기 생산 논의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정전 후에는 심리전 용도로 라디오 수신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은 추진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한선전에서 원조의 비중이 커지자, 선전매체로서 라디오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하였다. 1956, 59년 미국공보원과 OEC가 맺은 협약에 의하면, OEC의 국가목표에는 시민의 사기와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민주제도를 강화한다는 항목이 있고, 미국공보원의 역할에도 한국의 신문과 공보실을 포함한 정보매체의 활용을 촉진할 책임이 들어있었다.⁴⁸ 미국이 한국을 원조한다는 사실의 선전 외에도 원조물품의 사용, 기술 보급, 행정과 보건위생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전파하는 데도 라디오는 유용하였다. 또한

47 Incoming Message, from CG 2D LOG COMD(G-3 INT SECT)(Radio Pusan Det) to CINCFE(Psywar), NR, LSGIJ 8414-4, 21 Apr 52(RG 554, General Correspondence, 1951-1952, Box 23); Check Sheet, from G-5 to Psywar, File No. AG 413.44(20 SEP 52), subject: Radio Receivers for ROK(위와 같음).

48 Memorandum, from USIS-Korea to SECSTATE-ICA-USIA Washington, subject: USIS-OEC(ICA) Coordination Agreement for Korea(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78); Foreign Service Despatch, from Joint USIS-Embassy-OEC-Seoul to USIS-Washington, No. 16, January 7, 1959, subject: USIS-OEC(ICA) Coordination Agreement for Korea(RG 306, Office of Research, Country Project Correspondence, 1952-63, Box 13).

195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에 라디오가 보도뿐 아니라 오락 용도의 대중매체로 자리를 잡아나가지, 미국공보원은 라디오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수신기의 한국 내 생산을 주장하였다.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수신기의 국내생산은 경제원조기관인 OEC가 추진하였으나, 대한선전을 내세우며 수신기 생산과 보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은 미국공보원이었다.⁴⁹

1957년 초에 미국공보원 라디오텔레비전 담당관 존 커티스는 라디오 부품의 수입이 허용되는지 알아보려고 OEC를 접촉하였으나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였다.⁵⁰ 그는 부품 조달이 가능하고 가격이 적당하다면, 한국 회사들이 라디오 수신기를 조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원조기관은 여전히 라디오를 사치품으로 간주하였고, 한국의 전기전자산업은 인력, 품질관리, 특허의 면에서 아직 시작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다고 보았다.⁵¹ OEC는 대외교역의 결제화폐인 달러, 특히 원조 달러를 엄격히 통제하였으므로, 한국 회사들은 부품을 수입하여 수신기를 조립생산하는 길조차 거의 막혀있었다. 한국정부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완제품은 물론 수입부품까지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미국공보원이 선전매체인 라디오 수신기의 보급 필요성과 저가 수신기의 국내생산을 거듭 강조하자, OEC는 부품수입과 매각 달러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완화해 나갔다. 또한 라디오가 대중매체로 성장하는 것을 주목한 천우사와 금성사가 수신기의 조립생산을 시도하자, 선전 효과 증대와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저가 라디오 수신기 프로젝트를

49 Memorandum, from RD-CD (Mr. Wardell) to CEBORC (Mr. Johns), RD(Mr. Seymour), October 20, 1958, subject: Manufacture of Radio Receivers(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91).

50 Official-Informal, from Anthony Kaye to Mr. Gerald Stryker, IBS, Far East Division USIA, January 22, 1957(RG 306, Office of Policy and Research/Program Analysis Staff, Records Relating to Worldwide Radio Developments, 1954-1963, Box 7).

51 Memorandum, RD-CD (Mr. Wardell) to EC-D (Mr. Wollmar), September 18, 1958, subject: Radio Listening in Korea(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77).

추진하였다.

3. 천우사의 수신기 생산

가. 수신기 사업의 개시와 OEC 정책

라디오 수신기를 공장시설에서 가장 먼저 제작하여 판매하였던 회사는 천우사였다. 천우사는 전택보가 1947년 3월 설립하여 홍콩 등 동남아와 교역하던 무역회사였다.⁵² 주로 농산물을 수입하던 천우사는 정전 후 대성목재와 조선 피혁을 인수하며 제조업으로도 진출하였다. 또한 1955년 약 15,000달러에 달하는 산업용 형광등 수입을 OEC로부터 허가받았다.⁵³ 1956년 5월에는 필립스 한국총대리점의 명의로 중단과겸용 전지식 4구 필립스 제품 라디오 수신기를 23,000원에 판매한다는 신문 광고를 냈다.⁵⁴ 무역업자인 전택보는 한국을 비롯한 저개발 신생국가에서 라디오가 대중매체가 되어가고 텔레비전 방송까지 나온 상황을 지켜보고 새로운 유망사업으로 전자제품 수입을 시작하였을 것이다. 천우사는 라디오 외에도 확성기, 스피커, 콘덴서, 진공관, 전축, 마이크, 기타 통신기 완제품과 부속품 등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였다. 1958년에는 필립스 한국총대리점을 유지하면서 일반무역대행까지 하였고, 도쿄와 마닐라에 해외지점을 두었다.⁵⁵ 필립스는 1930년 즈음에는 세계 최대의 라디오 수신기 생산회사였고, 미국정부의 해외선전용 저가 수신기 정책에 일찌감치

52 철학교수타입. (1952.1.24). 「경향신문」, 1; 그때 그일들. (1976.2.18). 「동아일보」, 5; 유기덕, 해방후 민간무역에 관한 연구 - 천우사를 중심으로, 『경영사연구』 7, 한국경영사연구회. 1992.

53 Letter, from Dewey T. Johns, Sr., Deputy Director, Office of Program Implementation to Hyun Chul Kim, Minister of Reconstruction, August 22, 1955(RG 496,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24).

54 광고. (1956.5.2). 「동아일보」, 2.

55 광고. (1958.2.25). 「경향신문」, 1.

호응하였고, 50년대에 인도, 홍콩, 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라디오 사업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천우사의 사업 확장은, 투기성이 농후한 투자자금의 집중도를 파악하고, 이런 투기집단이 한국경제를 비정상적으로 지배하는 실태를 조사하려는 OEC의 이목을 끌었다.⁵⁶ OEC는 몇몇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가 불법은 아니더라도 각종 형태의 운영 및 설비 자금 지원을 연이어 신청하며 의도적으로 “빈약한 재정상태”에 놓이는 경향을 찾아냈다. 또한 소규모 개인 투자자가 대개는 대충자금으로 구성된 대규모 채무를 안고 있는 몇 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OEC는 이런 회사의 목록을 작성하였고, 거기에 삼성 등과 함께 천우사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천우사는 당시 진행되던 ‘재벌화’ 과정에 있던 회사였다고 할 수 있다. 라디오 수신기 생산과 판매는 무역회사 천우사가 새로 진출할 제조업 영역이었다.

정부는 국내시장 보호, 외화지출 억제, 재정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1957년 1월 1일부터 라디오와 텔레비전 완제품과 부속품에 고율의 관세와 물품세를 부과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텔레비전 수상기를 수입하던 코카드(KORCAD)가 큰 타격을 입었던 것처럼, 관련 제품 수입업체에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택보는 라디오 수신기 부품수입에 나설 만큼 시장 잠재력을 확신하였던 것 같다. 더하여 그해 6월 20일부로 “부속품”의 수입은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는 상공부의 무역사무절차요령이 공표되었다.⁵⁷ 그럼에도 주일대표부가 오성흥업회사에 3천 달러에 달하는 일제 라디오 부속품의 수입을 승인하였다가 조사받을 처지에 놓인 일도 있었다.⁵⁸ 당시 모 회사가 일제 5구 수신기 완제품

56 Memorandum, from CON-AE to Program Review Committee, 25 September 1958, subject: Stockholder's List(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 1956, Box 76).

57 공보처, 「관보」 1811호, 상공부 고시 제260호, 1957년 6월 20일.

58 승인경위를 조사. (1957.11.18). 「조선일보」, 2.

500대에 대한 6,000달러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것을 언론이 보도한 것을 보면,⁵⁹ 외국 사치품 수입을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가 느껴진다. 자연히 정식 수입된 완제품은 매우 비쌀 수밖에 없었고, 불법적인 밀수나 미군 PX 유풀품은 단속 대상이었으므로 위협하였다. 하지만 라디오 수신기 수요가 커졌으므로, 외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수신기를 제작 판매하려는 사업가들이 나왔다. 위의 오성흥업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무역실적이 저조하여 무역업 자격상실 대상이 되는 등 건실한 기업체로 보기 어려웠다. 당시 국내의 다수의 무역업자는 원조 경제에 기대어 투기적인 무역사업을 하였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수신기 수입도 그 대상이었다.

1957년 2월 원조달러 불하 신청을 심사하는 OEC의 매각심사위원회(Saleables Review Committee)는 천우사가 요청한 전자기구 수입 건은 ICA 자금의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⁶⁰ 위원회는 1:500이라는 공정 환율로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불하받아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기업체의 신청을 심사하였다. 여기에는 수입품에 대한 조건이 붙었으므로 달러 매각뿐 아니라 물품의 수입 가능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다. 여드레 뒤 부흥부 차관은 매각심사위원장에게 천우사가 신청한 건을 자세히 설명하며, 26,668달러에 상당하는 각종 전자기기와 부품의 수입허가 타당성을 강조하였다.⁶¹ 그에 따르면, 그 전자부품은 천우사가 직접 경영하는 국제전자기구상사가 라디오 수신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할 것들이었다. 그리고 합동경제위원회가 ICA 자금 지원을 불허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완제품이나 부분품이 아니라 허가 품목에 해당하는 조립용 필수 부품이었으므로, 심사위원

59 라디오 5백대수입. (1958.10.19). 「조선일보」, 2.

60 Letter, from Lowell J. Chawner to Mr. Tai Dong Kim, Chief, Bureau of Requirements & Coordination, MOR, February 14, 1957(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87).

61 Letter, from Chi Young Kim, Vice Minister, MOR, to Dr. Lowell J. Chawner, Assistant Economic Coordinator for Program and Economic Policy, 22 February 1957(위와 같음).

회가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하였다. 채신부가 이미 제작 계획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천한 사안이라고 하며, 전자제품의 조립생산이 외국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외화를 훨씬 절약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3월 11일에는 부흥부 조정국장이 한국정부의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품목 대부분을 매각심사위원회가 불승인하고 반송하였는데, 그것은 현행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유도 다소 명확하지 않다고 항의하는 공문을 프로그램정책 담당 부경제조정관에게 보냈다.⁶² 부흥부의 이런 의견은 부품을 수입해서라도 라디오 수신기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으로, 수입억제를 하려는 상공부의 정책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는 수입억제를 고수하는 상공부, OEC, CEB의 기본 정책은 변경되지 않았다. 따라서 3월 하순에 다시 열린 매각심사위원회에서도 천우사는 라디오 수신기 부품수입에 필요한 3,849.36 달러의 불하를 허가받지 못하였다.

5월 27일 새로 부임한 매각심사위원장은 저가 수신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할 달러 자금의 초기 배정을 결정하였고, 그에 수반하는 조건을 붙여 천우사의 부품수입을 승인한다고 부흥부에 통고하였다.⁶³ 수입부품은 튜닝과 오실레이터 등 코일 제작용 자기 철선, 제한된 타입의 진공관과 소켓, 종이 콘덴서, 탄소저항기, 각종 저항기, 지름 4인치 이하 스피커, 셀렌 정류기에 한정되었고, 조립생산된 수신기는 판매가격이 2만 원 이하 저가품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붙었다. 필요장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상당한 수공이 들어가므로, 코일은 단시일 내에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이유로 라디오통(캐비닛), 조립대(사시), 소켓, 콘덴서와 저항기, 완성 스피커도 단시일 내에 한국에

62 Letter, Tai Dong, Kim, Chief, Bureau of Requirements & Coordination, MOR to Dr. Lowell J. Chawner, Assistant Economic Coordinator for Program & Economic Policy, 11 March 1957 (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 - 1956, Box 87).

63 Memorandum, from F.L. Mayer-D/RE to Mr. J.A. Carey-CEB, May 27, 1957, Control of the Import of Radio Receiver Components(위와 같음).

서 생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공관을 제외한 부품을 다른 고성능 장비나, 진공관 4구 이상과 일반 주파수대를 넘는 고가 수신기의 조립에 사용할 때에는 수입허가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건까지 달았다. OEC 가 수입부품이 다른 곳에 전용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OEC 담당자가 이는 “면밀한 고려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부흥부에 회신 하였듯이, 완제품은 물론이며 부품조차도 수입을 억제하던 OEC로서는 중대한 정책 변경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승인은 매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엔군사령부 경제조정관 윌리엄 원(William E. Wame)이 5월 17일에 위원장에게 직접 내린 지시에⁶⁴ 따른 것이었다. 부흥부가 위원회의 불승인 결정에 항의하였던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달러 매각에 국채 소화 여부를 둘러싼 부흥부와 재무부의 갈등에다가 달러 배정 방식을 두고 OEC와 부흥부가 벌인 대립이 있었다고 짐작된다.⁶⁵ 부흥부는 중요생산원료를 실수요자, 즉 생산업자에게 먼저 배정하려고 하였으나, OEC 매각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이에 반대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달러 민수자금공매가 연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문제는 부흥부의 의견대로 수습이 되었으나, OEC 일부 관계자는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천우사 신청 건을 포함하여 다수 신청이 위원회에서 거듭 거부를 당하였다. 결국 원 경제조정관은 매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경질한 뒤에 위의 지시를 내렸다. 이런 대립은 한·미 양국정부의 경제정책에 관련된 것이지만, 원조기관의 수장이 천우사가 신청한 건을 승인하도록 직접 지시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택보는 자유당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위상과 영향력은 상당히 컸다. 하여튼 천우사는 이후 신청 액수도 커지고 승인을 잘

64 Memorandum, William E. Wame, Economic Coordinator to OEC Saleables Review Committee, Mr. D. Jones, RE, Mr. Mayer, May 17, 1957, subject: Import of Radio Receiver Components(위와 같음).

65 생산무역업자간의 대결. (1957.3.7). 「경향신문」, 2.

받았던 것 같다.⁶⁶ 1957, 8년에 원조달러를 40,000달러와 80,000달러를 불하받은 것 외에 한국정부 보유달러도 각각 30,000달러와 4,500달러를 불하받았다.⁶⁷ 이는 다른 불하 건에 비하여 액수가 큰 편에 속하였다.

경제조정관이 천우사에 조건부 수입을 허용한 이유는 작은 규모의 라디오 수신기 제작업체를 창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작고 새로운 산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즉 노동집약적인 전자공업의 선도기업을 육성한다는 의도였다. 수입통제를 완화하며 각종 부속품의 제작 완성을 재촉한 이유도 이런 정책 의도와 국내생산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산업발진으로 자립경제를 이루려는 부흥부의 정책이 분명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리하여 라디오 수신기 조립생산은 머지않아 한국산업의 주축이 된 전자공업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수입허가를 한 1957년 5월 시점에서 OEC의 전자산업 육성정책의 의지가 강했거나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나. 수신기 생산과 판매

1957년 천우사는 부품을 전량 수입하여 필립스의 모델 u134 AC/DC 수신기 약 2,000대를 조립하였다.⁶⁸ 미국 원조기관은 교류로 작동되는 이 수신기는 종전 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판매되고 있으나, 대량보급을 하기는 여전히 높은 가격이라고 하였다. 그래도 천우사는 매달 1,000대를 판매하기 바랐고, 향후 국내 제작된 부품을 더욱 많이 사용하고자 하였다. 1958년 2월 천우사는 필립스의 지원을 받아 도매가 12,000~15,000원짜리 라디오 세트를 조립생산하고 있

66 7월 9일 총액 3만 달러가 넘는 3건을 신청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Memorandum, Dewey T. Johns, Chairman to Tai Dong, Kim, Chief, Bureau of Requirements & Coordination, MOR, July 9, 1957, RG 469, Central Subject Files, Box 118).

67 Memorandum, RD-CD (Mr. Wardell) to EC-D (Mr. Wollmar), September 18, 1958, subject: Radio Listening in Korea(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77).

68 Short Market Survey.

었다.⁶⁹ 1958년 11월 판매되던 천우사의 또 다른 수신기의 도매가가 22,000환 이었다는 것을 보면,⁷⁰ 이 초기제품은 성능이나 사양이 낮았다고 추측된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1957년 하반기에 천우사가 라디오 수신기를 제작 판매하였고, 비록 저품질의 조립품에 불과하였을지라도, 수신기가 한국 최초로 대량생산되었다는 사실이다. 라디오 등 전자제품의 판매점과 수리점이 불과 몇 명의 직원을 두었던 것과는 다르게, 천우사는 판매원 5명과 기술자 37명을 고용하였으므로,⁷¹ 생산시설은 연간 수 천대를 제작하던 공장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코카드 상사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수입업자, 도매상, 소매상으로 한동안 선두를 달렸고, 라디오 수신기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천우사가 주도권을 잡았으므로 포기하였다.

일제강점기나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도 한국인이 수신기를 제작하였다는 일화 등이 전해지지만, 그것은 공장생산이 아니라 수리점이나 그와 비슷한 시설에서 조립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일제하 방송국의 젊은 기술자가 부품을 구하거나 손수 제작하여 조립한 단파 라디오로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거나 미국의 소리(VOA) 등 해외방송을 청취하였던 사실에서 보듯이, 라디오 수신기 제작에는 고도의 기술과 정밀한 부품이 꼭 필요하지는 않았다. 중고를 포함하여 여러 경로로 구한 부품과 자가 제작한 부품으로 마치 가내 수공업 방식으로 수신기를 조립한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외제 라디오의 수리와 습작에서 전자공

69 Memorandum, from William L. Wardell, Chief, Communications Division to PE-PD(Mr. Jones), RE(Mr. Seymour), 12 February 1958, Radio Receiver Components(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91).

70 Memorandum, from RD-CD (Mr. Wardell) to EC (Mr. Wollmar, Acting), November 21, 1958, subject: Radio Receivers(위와 같음).

71 위의 Short Market Survey <부록1>에 기재된 서울 소재 전파상 31곳 중에서 천우사 외에 기쁜 소리와 코카드 상사가 기술자를 10명씩 고용하였고, 6명을 고용한 1곳 외에 나머지는 3명을 넘지 않았다.

업이 일어났다는 견해도⁷² 경청할 만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다수의 노동자가 규모가 큰 공장시설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였는지 여부이다. 또한 수신기가 이렇게 대량 생산과 판매가 되지 않고서는 라디오 방송을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라고 하기는 어렵다.

천우사에서 수입부품으로 수신기를 생산해내자, 원조달러가 사용되는 부품수입을 까다롭게 제한하였던 OEC 정책도 변하였다. 1958년 2월 천우사로 추정되는 수입업자가 애초 정해진 4인치 스피커가 아니라 5인치짜리를 수입하고자 신청하였으나, 한국은행은 규격 제한을 넘었다고 수입을 허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이에 OEC 통신과 과장 윌리엄 와델(William L. Wardell)은 오히려 제한을 6인치로 확대하자고 상관에게 건의하였다.⁷³ 또한 그는 같은 날 라디오 방송 시설에 관한 문서를 기안하며, 이런 정책의 전환은 앞으로 라디오 방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⁷⁴ 또한 지원하겠다는, 수신기 보급을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천우사가 소매가 12,000~15,000환 범위의 수신기를 제작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량보급에는 가격이 비싸고, 특히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즉 통신과장의 뜻은 수입비용의 절감 등 생산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을 만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천우사는 1958년 7월 13일과 16일 양일에 걸쳐서 『경향신문』에 5구 전기용과 4구 전지용 수신기 광고를 실었다. 이것은 1957년 10월 ‘필립스 전지용 라디오 입하안내’라는 광고⁷⁵ 이후에 오랜만에 나온 것이었다. 몇 달 사이에

72 산업인맥. (1976.4.15, 22, 26). 「매일경제신문」, 4.

73 Memorandum, from William L. Wardell, Chief, Communications Division to PE-PD(Mr. Jones), RE(Mr. Seymour), 12 February 1958, Radio Receiver Components(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91).

74 Memorandum, from RE-CD (Mr. Wardell) to PE-PD(Mr. Jones), RE(Mr. Seymour), 12 February 1958, Radio Broadcast Facilities(위와 같음).

75 광고. (1957.10.28). 「경향신문」, 2.

새로운 제품을 자체 제작하여 시장에 내놓으면서 게재한 광고였다. 트랜스가 필요하지 않고, 전기 사정이 좋지 못한 일반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는 음질 좋은 라디오라고 장점을 부각하였다. 전력 부족에 라디오 청취가 쉽지 않은 한국의 사정에 맞는 제품을 시판한 것이었다. 광고 하단에 필립스 한국총대리점이라고 밝혔어도, 상단에 자사 영문 명칭인 “Chunu”를 크게 명기한 것으로 보아, 필립스 완제품이 아니라 수입부품과 국내생산 부품을 조립하여 제작한 수신기가 틀림없다.

OEC가 미국공보원과 함께 천우사의 발전과 계획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11월에 작성한 문서는 천우사가 진공관 라디오 수신기를 “2년 동안” 제작해 왔고, 현재 도매가 22,000환, 소매가 25,000~26,000환짜리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였다.⁷⁶ 8월에 작성된 미국공보원의 보고서는, 조립 능력을 갖춘 “유일한 현지 라디오 회사”인 천우사가 조립한 필립스 모델 5구 수신기의 실제 소매가격은 32,000~35,000환으로 25,000환 이하로 판매한다고 OEC와 맺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천우사는 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소형인 시제품 두 가지도 디자인하여 현재 제작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 제품은 4구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로 도매가 15,000환, 다른 제품은 3구로 주파수 변조라는 낯은 방식으로 9,000환을 예상하였다. 만약 한 달 1,000대가 팔린다면, 가격은 더 싸질 것으로 보였다. 이 제품은 제비용과 광고가 없이 약 9,000환에 팔릴 수 있었고, 월 500대를 판매하고 있었다.⁷⁷ 이렇게 하여 약 10여 개월 동안 판매한 모든 모델의 수신기는 약 7,000대이며, 도매가는 평균 25,000환이었다.

초기에 제작된 천우사 수신기의 외관은 일체나 미제만큼 잘 만들었으며, 라디오통은 처음에는 목재를 썼으나, 현재는 금속으로 제작하며, PVC는 공급

76 Memorandum, from RD-CD (Mr. Wardell) to EC (Mr. Wollmar, Acting), November 21, 1958, subject: Radio Receivers(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91).

77 Minutes of Meeting to discuss Korean Radio Receiver Manufacture Conducted Wednesday, 25 February, 1959(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118).

이 불안정하므로 사용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라디오통 외에도 사시, 다이얼, 플러그, 코드, 손잡이를 자체 제작하였다. 낮은 전력의 탄소저항기를 시험으로 일부 수신기에 사용하였다. 콘덴서를 꾸준히 개량하고, 1958년 초에는 코일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몇 년 안에는 진공관, 일부 저항기와 콘덴서, 스피커를 한국에서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부산세관에 트랜지스터 키트(kit)가 입고되어 있으며, 받자마자 진공관을 트랜지스터로 교체할 계획이며, 필립스의 지원으로 이런 전환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키트는 조립에 필요한 여러 개 부품을 한데 모아 조립해둔 부분품으로, 1957년 5월 부품수입을 허가받을 때까지만 하여도 수신기 완제품과 마찬가지로 원조 달러 사용 불가품목에 해당하였다. 또한 디자인과 제작을 배우도록 직원 2명을 유럽에 파견하였고, 부품 일부라도 직접 만들기 위해서 OEC에 기계구매자금 5만 달러를 신청하였다. 우선 무선주파수코일 제작에서 시작하여 각종 콘덴서와 중간주파수변조기까지 생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판매가의 약 30%에 달하는 수입에 따른 비용이었다. 그러므로 통신과장은 다음에 할 일은 수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활발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즈음인 1958년 11월과 12월 천우시는 4가지 모델의 라디오 수신기와 전축 제품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였다.⁷⁸ OEC 문서가 개발하고 있다고 한 모델이 실제로 생산되어 발매된 것이다. 특히 진공관식 라디오 크기의 절반도 되지 않는, 현재의 자동차 오디오 세트와 같은 모양과 크기의 트랜지스터 수신기가 주목된다. 트랜지스터를 7개 장착하고, 4개의 건전지로 두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신기였다.⁷⁹ 이처럼 천우시는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최소 4가지 모델

78 광고. (1958.11.6, 11, 12.14). 「경향신문」, 2..

79 Minutes of Meeting to discuss Korean Radio Receiver Manufacture Conducted Wednesday, 25 February, 1959(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118).

을 생산하였고, 트랜지스터 수신기와 부품을 제작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였다. 천우사의 수신기 제작은 공장시설에서 이루어진 한국 라디오 생산의 효시이자, 라디오와 텔레비전 제조업이 이끈 전자산업의 맹아였다. 다만 단순한 부품만 국내생산하였고, 판매실적이 7,000여 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수신기의 국내 제작과 대량보급이라는 궁극적 목표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959년 1월 수입부품 관세는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인상되었다. 1957년 1월 1일에 공포된 관세법은 2년 뒤에 재차 개정되었다.⁸⁰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서를 보면, “국내산업의 현저한 발전에 따라 물품에 따라서는 이를 보호육성하는 견지에서 보호관세율로서의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간 국내에서 라디오 수신기를 제작하게 되었으므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과 완제품도 관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라디오 수신기(사시 포함)에서 단파 수신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진공관 4개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 즉 저성능의 중파 수신기 완제품에 대한 세율이 30%에서 35%로 높아졌다. 기타로 분류된 것은 그보다 성능이 높은 완제품으로 추측되는데 40%로 변동이 없었다. 국내에서 부품 일부가 생산되었으므로, 부분품, 또는 부속품도 25%에서 35%로 높아졌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진공관(광전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포함)은 15%로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세금은 4구 수신기 시장가의 35%, 5구 이상은 50%에 해당하였고, 하위 공무원의 월급에 상당하였으므로, 주요부품을 수입품으로 조립한 수신기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었다. 또한 관세 인상은 부품수입조건을 완화한 OEC의 조치를 거의 무력화시켰다. 그렇다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안에 관세가 경감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통신과 과학의 의견대로 부품의 수입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였던가, 아니면 한국정부의 관세 인상이 자립경제에 유효한 대책이 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기술과 재료 등이 부족하여 생산하지 못하였던 부품의 수입제한은 라디

80 국회사무처, 제3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8호(부록), 1958.

오 수신기를 포함한 전자산업의 발전을 지체시켰던 것은 분명하다.

이즈음 천우사는 라디오 수신기 생산에 주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부품으로 수신기를 조립하는 사업은 이윤율이 높을 수 없다는 점이 포함되었다고 생각된다. 생산초기단계였고 시장 자체도 협소하였으므로, 규모의 경제도 이를 수가 없던 조립가공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거기다가 부품수입에 대한 정부와 OEC의 규제와 징세도 쉽게 완화되지 않았으므로, 수신기 가격을 낮춰서 시장을 확대하기도 어려웠다. 천우사가 다른 상품의 무역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외국산 수신기 부품의 조립생산과 국내 판매에 비하여 훨씬 컸을 것이다. 여기에 제조업이 아니라 통상을 통해서 성장한 무역업체의 체질도 수신기 생산과 투자 의욕이 약화된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천우사는 1960년대 초 수출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이 추진되자, 곧바로 합판, 의류, 조화 등 경공업제품 수출에 매진하였고, 노동 집약적인 보세가공무역을 개척하며 1960년대에는 수출무역에서 선두를 달렸다.⁸¹ 이런 수출제일주의와 원조감소 추세에서는 자립경제나 수입대체를 표방하며 수입부품의 단순조립과 국내 판매보다는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훨씬 부가가치가 컸을 것이다. 그러나 천우사는 1969년 부실경영으로 계열사 6곳이 정부의 정비대상이 됨으로써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그나마 천우사에 남아있던 텔레비전, 라디오, 카세트 생산 부문도 1977년 금호전자로 넘어갔다.⁸² 유력한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좌절한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도 천우사는 라디오 수신기 생산을 한동안 보세가공 방식으로 유지하였고, 그 규모는 상당히 컸다. 상공부가 세운 1966년도 라디오 수신기 수출목표액은 352만 달러였다.⁸³ 이중 금성사 130만 달러, 동남전기

81 천우사가 수위 차지 상반기수출실적. (1965.8.2). 「매일경제신문」, 2; 유기준, 앞의 논문, 185~90쪽.

82 천우사의 전기전자부분인수. (1977.1.28). 「동아일보」, 2.

83 3백52만불책정 라디오수출. (1966.4.8). 「매일경제신문」, 3.

40만 달러는 일반수출 부문이며, 보세가공수출은 동남전기 70만 달러, 그리고 천우시는 60만 달러였다. 천우시는 금성사와 동남전기에 주도권을 내주었다라고도, 보세가공수출만으로 전체수출목표의 17%를 감당하였다. 그렇지만 부품의 자체 생산 등 수신기의 국산화와 국내 판매 대신에 외국산 부품 조립과 전량 수출이라는 보세가공무역, 그에 따른 관세 부과 유예와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택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였다. 이점은 후발업체였어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립의 길을 걸었던 금성사의 성공에 비춰보면 더욱 확실하다. 많은 사람이 사실과는 달리 금성사가 최초로 라디오 수신기를 생산하였다고 알고 있는 까닭의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경영전략과 그 성과일 것이다.

4. 미국 정부기관의 저가 라디오 수신기 프로젝트

가. 프로젝트의 추진

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작성된 라디오 수신기, 텔레비전 수상기, 전축, 그리고 부속품에 관한 앞의 시장조사보고서는 1957년 후반의 시장 현황뿐 아니라 수신기의 국내생산 기반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조사 당시까지만 하여도 한국에서는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품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피커, 종이 콘덴서, 베이크라이트 소켓과 같은 부품을 자체 생산하려고 시도하는 한국 업체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런 부품 생산은 가내 수공업 방식이나 시험 단계에 불과한 수준으로 학생용 소량 주문에 응하였다. 손잡이, 다이얼, 진공관판, 그밖에 간단한 액세서리를 만드는 곳도 있으나, 부품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수입 라디오 조립에 사용할 것을 자체 제작하였다. 이 외에 주요 생산 품목에는 5구 교류 수신기와 4구 직류 수신기에 사용되는 샤시, 안테나, 각종 코일, 라디오통이 있었다.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발전된 것은 수입 인쇄회로기판의 사용으로, 최대 매월 수천 개를 생산할 계획이었

다. 또한 수입부품으로 수신기를 조립생산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몇 개 회사가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막 개시하는 회사들도 있었다. 또한 일부 회사는 미국 회사에서 부품을 공급받아서 한국에서 조립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미국 회사 중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회사는 없었으므로, 한국 업계는 눈길을 유럽 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미국공보원과 OEC가 거론한 업체는 천우사와 금성사였지만, 조사보고서는 부품 제작과 수신기 조립에 관심을 보이거나 착수한 회사를 여러 곳에서 복수로 표현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두 제작사 외에도 다수 업체가 라디오 수신기의 부품과 완제품 제작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라디오 수신기 등 전자기기의 생산 토대가 조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사보고서의 〈부록 1〉에는 수입, 판매, 조립생산, 수리 관련 업체가 서울에 31개, 부산 2개, 대구 2개가 기재되었고, 지방도시 6곳도 조사가 되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소규모의 전파상과 “뽕쟁이” 기술자들이 있었을 것이다(윤상길, 2011b, 215~22쪽).

1957년에 이르러서 미국공보원과 OEC는 수신기 보급 상황을 지켜보는 데에서 벗어나 조립제작이나 국내생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처음부터 수신기 가격이 ‘저가’여야지 실질적인 보급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본격적으로 저가 수신기 생산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10월이었다.⁸⁴ 그때 수신기 사양을 진공관식이 아니라 소형 트랜지스터라디오로 상정하였고, ‘저가’는 5,000환으로 예정하였다. 당시 천우사의 4구와 5구 진공관 수신기가 26,000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가 수신기의 사양과 가격은 지나치게 높았다. 곧 저가를 10,000환 이하라고 수정하였으나, 역시 달성하기는 지난하였다. 그러므로 광석라디오 생산과 보급에 눈을 돌리기는 하였어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방안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추진하지 않았다. 저가 수신

84 Memorandum, from RD-CD (Mr. Wardell) to CEBORC (Mr. Johns), RD(Mr. Seymour), October 20, 1958, subject: Manufacture of Radio Receivers(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 - 1956, Box 91).

기 프로젝트는 관계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끝내 원조기관의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달러 판매를 허가함으로써 부품수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1957년 5월의 결정과 이후의 조치를 넘어서 라디오 수신기 생산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제개발의 초석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에는 라디오 방송을 선전매체로 삼았던 미국공보원의 의도도 빼놓을 수는 없다.

1958년 7, 8월에 천우사가 생산한 라디오 수신기는 가격이 비쌌으므로, 미국 정부기관이 제시하는 저가 수신기 기준에는 맞지 않았다. 9월 OEC 부경제조정관은 미국공보원이 권고하는 저가 전지용 트랜지스터라디오의 생산을 OEC는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좀 더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신과에 지시하였다.⁸⁵ 곧바로 이튿날 통신과장은 한국의 라디오 수신기 생산은 현재 진행되는 통신장비생산공장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년 뒤에도 가능할지 모른다고 하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트랜지스터라디오를 생산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광석라디오를 생산해야 한다고 제안할 만큼 한국 자체의 생산능력을 과도히 낮게 인정하였다.⁸⁶ 몇 년 동안 달러를 계속 불하받아서 부품수입을 늘리고, 한국정부가 조립생산을 스스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당시 실정에서는 실효를 거두기가 극히 어려웠다.

11월 초 미국공보원은 금성사가 판매하겠다는 수신기는 10,000환 이하로 제작할 수 없으므로, 대량적인 수신기 보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85 Memorandum, Deputy UNC Economic Coordinator to Mr. William L. Wardell, September 17, 1958, subject: Radio Listening in Korea; Memorandum, RD-CD (Mr. Wardell) to EC-D (Mr. Wollmar), September 18, 1958, subject: Radio Listening in Korea(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77)

86 1959년 5월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오디오 외에 전자공학을 다루는 월간잡지 『전과과학』이 발간될 만큼 전문지식을 소화할 기초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전자기기와 부품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런 전문잡지는 발행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한국 라디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윤상길의 1960년대 한국 라디오 테크놀로지의 ‘부락화’를 참고.

하였다. 그럼에도 21일 직전 미국공보원과 OEC 통신과 과장은 저가 수신기 생산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⁸⁷ 이 자리에서는 천우사 사업의 경과와 이에 따른 계획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금성사와 접촉하여 며칠 내로 매니저와 기술자가 상경하여 회사의 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이후에도 지속하였다. 12월 OEC 시청각과와 통신과 과장은 수신기 보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⁸⁸ 14종에 이르는 부품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조립 회사와 상의하지도 않았을 만큼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시도였다.

저가 수신기 프로젝트는 미국공보원과 OEC의 시청각과 및 통신과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었던이라도, 미국공보원 측은 아무래도 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OEC가 관심과 의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경제조정관 윌리엄 원과 산업과 소기업계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저가 수신기 원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⁸⁹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적은 사업이지만, 한국 농부와 노동자가 저가 게르마늄 수신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미국공보원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⁹⁰ 한 달 후인 2월 5일 해리 아놀드 공보원장은 미국공보원과 OEC가 함께 저가의 전지형 트랜지스터라디오를 제작하여 농촌 전역에 보급하기 위해서 종종 회의를 여는 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며 경제조정관에게 또다시 관련 사안을 건의하였다. KBS 방송시설의 설치

87 Memorandum, from RD-CD (Mr. Wardell) to EC (Mr. Wollmar, Acting), November 21, 1958, subject: Radio Receivers(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91).

88 Memorandum, from RD-CD (Mr. Wardell) to TC-AV(Mr. Gelabert), December 8, 1958, Radio Receiver Components; Custom Duties(위와 같음).

89 Memorandum, from George G. Wynne, Radio Officer to Mr. Henry F. Arnold, CPAO, December 17, 1958, subject: Production of Crystal Receivers(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118). 이 제안서는 미국공보원이 앞에서 말한 미도파 라디오부 박명진의 제안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다.

90 Memorandum, from Henry F. Arnold to Mr. William E. Warne, December 31, 1958, subject: Proposal for the Production of Low-Cost Germanium Receivers(위와 같음).

와 운용을 자문하기 위해서 내한한 잉글만 라디오팀에 애초 계약에는 없는 수신기 생산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추가로 맡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⁹¹ 필요하다면 본국의 ICA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수정하기 바란다고 할 만큼 저가 수신기 생산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나. 프로젝트의 무산

1959년 2월 20일 저가 라디오 수신기 생산 가능성과 잉글만 라디오팀의 전문가 활용 여부를 논의할 미국공보원과 OEC 유관부서 대표자 회의를 열겠다는 원 경제조정관 명의로 된 통지가 나왔다.⁹² 2월 25일 회의에는 OEC에서 6명, 미국공보원에서 2명, 천우사와 금성사 외에도 미도와 라디오부 대표가 참석하였다.⁹³ 회의 초점은 각 업체 제품의 성능과 판매 현황에 맞춰졌고, 부품 국산화, 수입부품의 가격과 관세, 수신기 가격 등 주요 사항에 맞춰졌다. 회의 참가자들은 각종 계획과 현황을 검토하였어도, 현품이 전시된 천우사의 트랜지스터라디오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것 같다. 미국공보원이 원하였던 휴대용 트랜지스터라디오의 가격은 10,000환 이하였으나, 이 제품은 26,000환이었으므로, 저가 수신기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약 800환에 콘덴서를 자체 생산할 수 있으나, 수입품은 95센트였으므로, 달러당 500환인 공정환율로는 국산품이 더 비싼 셈이었다. 관세는 공식적으로 35%였으나, 천우사 대표는 50%가량이라고 답하였다. 공정환율이 “비현실적인” 점을 고려하고, 달러를 불하받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부품수입은 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국내산 재료와

91 Memorandum, from Henry F. Arnold to Mr. William E. Warne, February 5, 1959(위와 같음).

92 Memorandum, from UNC Economic Coordinator to Henry F. Arnold, USIS, February 20, 1959(위와 같음).

93 Minutes of Meeting to discuss Korean Radio Receiver Manufacture Conducted Wednesday, 25 February, 1959(위와 같음). 천우사 대표는 관리책임자 김형차와 수석기술자 최태공, 금성사 대표는 디렉터 구평희(창업자 구인회의 넷째 동생), 수석기술자 하인즈 행케, 미도와 라디오는 박명진이었다.

기술로는 만족한 제품을 만들기도 어려웠다. 미도파가 제시하고 경제조정관 대리가 동의한 대로, 광석라디오가 대안이라면, 당장 많은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 품질과 만족도는 극히 낮을 것이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별 의미가 없었다. 시장규모를 추정하지도, 한국정부 공보실 의견을 듣지 못한 상태라는 이유로 회의를 종료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신기의 생산, 가격, 판매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단히 난감하였을 것이다. 10,000환 이하 저가 수신기의 판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였다.⁹⁴

이 회의 직후 OEC 문서과의 프로그램 기획 담당자는 참석자 일부와 함께 각종 수신기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다.⁹⁵ 광석라디오는, 본국의 ICA 프로젝트에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이 없다면, 재원을 OEC 밖에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라디오 수신기는 수입부품의 세금 경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애로점은 OEC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으며, 몇 주일 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므로, 방송 네트워크 등 기술적인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잉글만 라디오팀의 지원 가능성도 타진하였다. 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수신기의 대량생산과 보급에 관한 사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저가 수신기 생산 프로젝트는 적어도 당분간은 추진될 수 없다는 의견을 미국공보원에 보냈다.⁹⁶

94 미국공보원 라디오담당관의 질문에 금성사의 서독인 기술자가 답변한 바에 따르면, 금성사는 일 년 전부터 수신기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당시까지 28,000대의 수신기를 판매하였다고 한다. 금성사의 정식 설립이 1958년 10월이고, 첫 제품이라고 하는 A-501 모델을 1959년 11월 15일에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고(『LG50년사』, 30~2쪽) 한 사실에 비춰봐, 그 기술자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A-501 이전에도 생산한 수신기가 있었다는 뜻인데, 그런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95 Memorandum, from E. Heginbotham, PE-PL-N to Mr. Reginald C. Price, PE-A, March 11, 1959 (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118).

96 Memorandum, from Mr. Reginald C. Price, PE-A to Mr. Henry F. Arnold, USIS, March 17, 1959 (위와 같음).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론에도 불구하고 10,000환 이하의 저가 트랜지스터 라디오 수신기 프로젝트는 1959년에도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관세와 물품세 등 수신기 가격의 35~50%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하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신임 시청각과 과장 해리 카(Harry Carr)는 통신과와 잉글만 라디오팀의 고문관에게 세금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다.⁹⁷ 1953~58년까지 라디오 완제품과 부품수입 액수가 50만 달러로 추산되므로, 관세 수입의 손실은 미미할 것이며, 산업이 발전하면 곧 더 많은 세금을 재정수입으로 얻으리라고 예측하였다. 쉽지는 않은 과제지만, 이제 기술과 공장 생산 능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10,000환 이하 수신기 제작용 부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머지않아 주요산업이 되고, 공보실, 유숨, 미국 공보원은 물론 미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나아가 한국의 민주적이며 사회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세금 징수 권한을 지닌 한국정부로부터 면세나 절세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한국정부로서는 소액이라도 당장 얻을 수 있는 재정수입을 포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여기에 사치품을 배격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도 강력하였다.

이처럼 관련 산업육성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문서를 받은 통신과 과장은 저가 수신기의 제작과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며, 현재 논의의 중이라고 회신하였다.⁹⁸ 그러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세금 경감은 즉각적인 효과를 별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천우사와 금성사로 보이는 두 제작회사가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인의 빈약한 구매력과 판매상의 영세성, 그리고 전자과학의 발전 수준이라는 난제에는 상업적 해결책이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난점

97 Memorandum, from Chief, AudioVisual Division to Chief, RD-CD, July 29, 1959, subject: Low Cost Radio Receivers(위와 같음).

98 Memorandum, from Harry D. Yankey, Acting Chief, RD-CD, to Chief, AudioVisual Division, 3 August, 1959, subject: Low Cost Radio Receivers(위와 같음).

으로는 한국정부가 관세와 물품세를 낮추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감세 조치가 원조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거듭 설득하여도 한국정부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통신과의 답장은 저가 수신기 프로젝트를 더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셈이었다.

그러나 시청각과 과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가 라디오 수신기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베트남에 현황 자료를 문의하는 문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⁹⁹ 미국공보처는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서 저가 수신기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10,000환이란 가격은 주한 미국공보원 자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공보처가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대량생산될 수신기의 가격으로 애초부터 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과 베트남의 미국 정부기관은 수신기 생산과 유통 정보를 여러 차례 교환하였다. 해리카 과장은 베트남 유숨이 보내준 매킨토시 수신기에¹⁰⁰ 관련 보고서가 저가 수신기 생산을 추진하는 한국 유숨에 유익하였다고 하며, 특히 원가에 관심이 크고, 수입부품의 종류, 생산업체, 면세, 보급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였다. 그렇지만 베트남 유숨에서 보낸 회신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고가 수신기를 생산하는 회사는 있지만, 저가의 매킨토시 수신기를 제작할 현지 조립공장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별로 진척되지 않기 때문에 유숨도 베트남 정부와 협약을 맺고 수신기 수입으로 눈을 돌렸고, 그나마 아직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99 Incoming Cablegram, from CINCREP to ICA, NO. TOICA 860, September 19, subject: Radio Receivers(Airgram, from Seoul to Saigon Vietnam USOM A-36, 10/14/1958, subject: Low Cost Radio Receivers; Airgram, from Saigon to Seoul USOM A-26, subject: Low Cost Radio Receiver(RG 406,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116).

100 미국 ICA는 라디오 기술자인 매킨토시에게 베트남 실정에 맞는 저가 수신기를 디자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가 개발한 수신기는 저가로는 제작할 수 없었다(Airgram, from Saigon to Seoul USOM A-12, 25 September, 58, subject: Radio Receivers(RG 406, Central Subject Files, 1950 - 1956, Box 77).

이 시기에는 대중매체로서 라디오 방송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저개발 국가도 수신기 보급이 대중화되고 있었다. 이런 흐름에서 유네스코 등 국제 기구도 라디오 방송의 개발을 촉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도 저가 중파 수신기를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보급하려고 하였다.¹⁰¹ 1959년 12월 ITU 관리무선회의에서는 결의안까지 통과시키고, 아시아와 극동을 보급지역으로 삼았고, 유엔 ECAFE와 UNESCO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OEC 시청각과 과장은 한국에서도 저가 수신기 제작산업체 설립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살펴보는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호의적으로 유네스코의 공헌에 답하였다.

1960년을 전후해서는 다수 개발도상국에서도 대중매체가 확산하고 있었다. 미국 국제개발처(AID)는 라디오 방송시설은 전체 인구의 96%가 거주하는 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국가는 1964년 초에 50%이지만, 65년에는 7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¹⁰² 모든 개발도상국이 국가발전 전에 대중매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직접이나 보조 교육매체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원조기관도 기술지원과 방송자료의 제공을 늘리고 있으며, 현재 73개국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방송매체의 확대 추세 속에서 미국은 공산주의와 직면하고 있는 아시아에는 특별한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태국의 라디오 프로젝트는 베이징과 하노이 방송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며, 베트남의 방송도 역시 반공 메시지의 전파를 목적으로 지원하였다. 반

101 Letter, from Harry L. Carr, Chief, Audiovisual Division to Tor Gjesdal, Directo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UNESCO, August 3, 1960(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147); Letter, from Tor Gjesdal, Directo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UNESCO to Mr. Harry L. Carr, Chief, Audiovisual Division, ICA, USOM Korea, 22 August 1960(위와 같음).

102 Memorandum, from Mr. W.E. Smith, A/CRD to Mr. Gale C. Griswold, A/CRD, January 9, 1964, subject: Program/Activity Report, 1963; Radio and Television Officer(RG 286, USAID/Communications Resources, Subject Files;1953-1967, Box 1).

공의 최전선 한국에도 선진매체인 라디오 수신기, 저전력의 저가 송신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저개발국가에 라디오를 냉전의 무기로 공급하였다. 또한 주한 미국 정부기관이 추진한 저가 수신기 프로젝트도 냉전의 프로그램이었다.

라디오 수신기 생산을 막 시작할 때, 천우사와 금성사는 한국정부나 OEC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 사실 지원이라고 하여도, 부품수입의 허가과 그에 소요되는 달러를 불하받는 것에 불과하였다. 저가 수신기 프로젝트는 원조사업으로 성안되지 못하고 계획과 준비 단계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한국이나 베트남에 주재한 미국 정부기관은 현지에서 제작할 수 있는 수신기의 최저 원가를 처음부터 부정확하게 계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생산능력은 물론이며 수신기 보급 열망을 지나치게 낮게 인정하였던 것 같다.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었으므로, 저가 수신기의 보급률은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던 시점이었다. 그리고 애당초 외환이나 조세정책으로 접근하지 말고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생산시설 등에 상호방위원조자금이나 대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성과를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OEC의 대기업, 중기업개발프로그램은 고사하고 지원 프로젝트가 한 해에 수십 개가 집행되었던 소기업개발프로그램에도 라디오 수신기 제작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요컨대 원조기관과 정부의 결정권자가 좁게는 수신기 제작 능력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저평가하였고, 넓게는 산업발전과 경제개발을 제대로 전망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라디오 방송을 오락매체로 간주하거나 실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사치품으로 보던 정부 관리나 국민 다수의 여론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도 미국 정부기관은 저가 트랜지스터라디오 개발에 수신기 프로젝트 제작에 관심을 가졌고 지원할 의지를 보여주었다.¹⁰³ 그

103 1961년 6월 유승 처장 모이어는 미국 ICA 본부에 한국이 저가 트랜지스터라디오 수신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였다는 정보를 전하였다(Airgram, from USOM Seoul to ICA/W TOICA A 3957, June 3, 1961, subject: Low Cost Transistor Radio Receiver, RG 469, Korea Subject Files,

러나 이때에는 금성사 등 한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또는 외국 기업과 협력하여 수신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젝트는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5. 금성사의 수신기 생산과 보급

가. 수신기 개발과 생산의 초기 단계

천우사가 수신기 제작과 판매를 시작하던 즈음, 1958년 10월 1일 부산 락희산업도 금성사를 설립하였다.¹⁰⁴ 금성사는 독일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라디오 수신기 생산에 착수하였고, 곧바로 라디오 부품수입용 매각달러를 신청하였다. OEC에서는 저가 수신기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부품수입에 필요한 달러 자금까지 불허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통신과 과장은 신청 승인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CEB와 OEC의 담당자에게 보냈다.¹⁰⁵ 금성사는 생산시설을 완전히 자체 자금으로 충당해 왔고, 기술과 자금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유리한 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전자장비와 전해콘덴서를 제외한 모든 기계류도 구매할 상태였다. 계획상으로는 라디오 수신기 외에도 다른 제품도 생산할 예정이었다. 이 회사는 현재 소매가가 26,000환인 천우사 라디오보다 더 저렴한 가격인 12,000~20,000환을 제안하였다. 또한 5천 환대의 트랜지스터 수신기를 시장에 내놓을 방도를 구하는 중이었다.

1953-1961, Box 154). 보고 내용의 요점은 일제 부품으로 설계된 것을 미제로 바꾸어야 하고,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정보 교환과 공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다. 한국 기업의 트랜지스터라디오 시제품은 유승과 문화공보부가 지원하였다고 하지만(Airgram, from USOM Seoul to ICA/W TOICA A 698, 9/1/61, subject: Local Radio Broadcast Demonstration, p.3, 위와 같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며, 규모가 큰 것 같지는 않다.

104 산업인맥. (1976.5.3). 「매일경제신문」, 4.

105 Memorandum, from RD-CD (Mr. Wardell) to CEBORC (Mr. Johns), RD(Mr. Seymour), October 20, 1958, subject: Manufacture of Radio Receivers(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91).

그런데 금성사의 계획서를 검토한 미국공보원 라디오텔레비전 담당관 윈(G.G. Wynne)은 미국공보원이 원하는 대량적인 트랜지스터라디오의 보급이라는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¹⁰⁶ 금성사는 진공관 69,000개, 스피커 16,000개, 10만 개 이상의 콘텐츠를 수입하여 반년 동안 여러 모델의 수신기 15,000대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윈 담당관은 자체 생산이라고는 말하지만, 거의 완전히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단정하였다. 금성사가 시장에 내놓겠다고 하는 세 가지 모델의 가격을 12,000환, 20,000환, 그리고 45,000환으로 산정한 것은 가격의 30%를 점하는 관세와 소매상의 마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천우사가 15,000환에 판매하고자 한 수신기의 소매가격도 30,000환을 넘었다. 따라서 그로서는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금성사의 계획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저가 수신기를 대량 보급하기도 어렵고,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기도 힘들다고 하였다. 금성사가 5,000환가량의 수신기 개발비로 매월 20만 환만 배정한 것을 명백히 진실하지 않은 의도로 해석하였고, 다른 중요한 결함도 엿보인다고 신랄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OEC의 유관부서인 산업과, 통신과, 시청각과가 금성사 계획에 호감을 보이거나 약 40만 달러에 달하는 매각달러 배정을 권고할 것이라는 믿기 어렵다고 단정하였다. 금성사가 시장가격 10,000환 이하로 판매한다는 무조건적인 계약의무를 수용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정부가 이 프로젝트로 수입되는 라디오 부품의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면, 소요되는 달러 비용은 승인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미국공보원장에게 단호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전에는 미국공보원보다 소극적이던 OEC 쪽이 부품수입 허가를 권고하였으나, 새로 부임한 윈 담당관은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하였다. 그나마 윈 담당관은 곧

106 Memorandum, from G.G. Wynne, Radio Officer to H.F. Arnold, CPAO, November 4, 1958, subject: Proposed Aid Program Subsidy of Gold Star Company for the Assembly of Radio Receivers(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78).

도착할 잉글만의 라디오 제작 전문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를 미결 상태로 두자며 여지를 남겼다. OEC의 시청각과장 윌리엄 질러버트(William F. Gelabert)는, 이런 부정적 의견이 미국공보원에서 나왔으나, 대사관의 의도도 한국 기업이 수신기를 생산하여 널리 보급하는 데 있으므로 일주일 뒤에 열리는 미국공보원과 OEC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경제조정관 대리에게 보고하였다.¹⁰⁷ 금성사가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일단 막힌 셈이었다.

금성사는 1959년 11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특수설계, 미려하고 명랑한 모양과 음질,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일제 산요를 모델로 한 첫 제품 Gold Star Model A-501 5구 수퍼헤테로다인 중단파 교류용 수신기의 광고를 신문에 실었다.¹⁰⁸ 10월 말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며, 월 3천 대를 생산하여 외국산의 3/5인 2만 환 내외로 판매할 예정이라는 신문기사가 이보다 일찍 게재되었다. 그리고 “국내 제작에 성공”, “부속품 일절을 수입하여 조립하던 현재까지의 국내 제작기술에 전환기를 이룩”, “세계의 수준을 달리는 한국의 기술”임을 내세우며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런 광고는 이듬해 출시한 A-503에는 더욱 강력해져 “외제를 몰아내는 금성 라디오”라는 광고 문구로 표현되었다.¹⁰⁹ 그렇지만 A-501 광고에 서독인 기술자의 협조를 받았고, 스피커, 바리콘, 콘덴서, 진공관 등은 외국산 수입부품을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즉 핵심 부품과 기술은 외국에서 온 것임을 강조하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의구심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자타가 ‘최초 국내 제작과 국산’을 부각한 이유는 시장을 장악한 고품질의 외국산 수신기와 경쟁을 피할 수 없었고, 자립경제와 외

107 Memorandum, from Chief, Audio-Visual Division to Acting UNC Economic Coordinator, November 10, 1958, subject: Radio(위와 같음).

108 국산라디오생산. (1959.10.14). 「동아일보」, 4; 광고. (1959. 12.16). 「동아일보」, 4; 「LG50년사」, 87~9쪽.

109 광고. (1960.11.27). 「동아일보」, 3.

제 사치품 배격을 외치던 사회적 분위기에 호소하려던 판매 전략이었다.

금성사 관련자는 최초 제품의 국산화율을 60%, 또는 2/3라고 하였으나, 계산 방법이나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므로 성능이 좋고, “우리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국내 제작, 최초 국산 라디오라는 금성사의 판매 전략이 엮보이는 광고성 기사를 인용하였다.¹¹⁰ 그렇지만 3년이 지난 1962년 하반기에도 라디오 수신기의 국산화율은 금성사 제품이 80%였고, 나머지 제작회사는 조립단계에 불과하다는 신문기사가 있다.¹¹¹ 핵심 부품인 트랜지스터와 진공관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스피커와 콘덴서 등도 아직 완전히 국산화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금성사의 A-501 수신기는 대부분 수입부품을 조립한 제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작 생산하였다는 부품을 보면, 스위치, 사시, 노브, 트랜스, 스크류, 너트, 플레이트, 소켓, 코드 등이었다(금성사, 1985, 154쪽). 부품의 종류, 수량, 품질이 같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이런 것은 천우사도 국산품으로 사용하였고, 소켓은 이미 다른 업체가 생산하고 있었다. 금성사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은 부품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금성사, 1985, 154~5, 159~62, 165쪽; 김해수, 2016, 150~4쪽).

이미 1957년 하반기 이래 천우사가 금성사처럼 수입부품 외에도 일부 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라디오 수신기는 ‘최초의 국산 라디오’로 불리지 못하였다. 금성사는 300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작업할 만큼 규모가 컸고, 초기부터 설계와 부품 국산화율이 높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국산화를 통해서 개발과 생산능력을 높였으나, 천우사는 제작 규모를 키우지 않고, 국산화에도 주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한 것인지도 모른다. 금성사 제품이 출시될 때에는 라디오 수신기 생산이 천우사의 주요 사업이 아니었던 것 같

110 김해수, 『아버지의 라디오』, 느린걸음, 2016년 개정판 1쇄, 146쪽. 『국제신문』 1959년 11월 4일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나, 『금성사이십오년사』에 실린 같은 기사 내용과는 약간 다르다.

111 라디오, (1962.11.8). 『조선일보』, 8.

다.¹¹² 또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택하였던 판매와 광고 전략에서 두 회사가 달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금성사의 전략은 부산에서 발행되던 11월 4일자 『국제신보』의 “최초의 국산 라디오” 기사 제목에 그대로 나타난다. 또한 12월에 제작된 대한뉴스 제244호는 “최초의 국산 라디오”라는 제목으로 3분 37초 동안 금성사의 수신기 공장과 노동자의 작업 활동을 보여준다.¹¹³ 라디오통으로 추측되는 플라스틱 부품과 코일을 직접 생산하고 있었다. 해설지는 월간 6,000대를 제작할 것이라고 생산계획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장면에는 모두 금성사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종류의 라디오통이 화면에 나타난다. 공보실 영화과가 제작하는 뉴스매체가 “최초의 국산 라디오”라고 이름 붙이기(naming)를 한 영상을 전국적으로 상영한 것은 금성사 A-501을 최초의 국산 라디오로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승만 정권은 재집권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성과를 내세울 필요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네이밍을 하였을 것이다.

금성사는 유숨에 저가 진공관 및 트랜지스터라디오 제작에 필요한 매각 달러를 신청하여 1960년 2월 70,000달러를 승인받았다.¹¹⁴ 잉글만 라디오팀의 니콜레이(A. A. Nicolay)는 이런 조치를 상당히 불만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는

112 무역업을 하던 천우사는 1960년 수출에 집중하였고, 주요 수출품은 합판, 보세가공 위주의 섬유제품, 트랜지스터라디오, 조화 등이었다(포상에 빛나는 업체들. (1966.11.30). 『매일경제신문』, 2). 여기서 라디오는 보세가공제품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국내 생산품은 아니었다.

113 당시에 종업원이 약 300명에 이르렀다(『금성사이십오년사』, 149쪽). 1963년 『전국기업체총람』의 부산 100대 기업(중사자수)에서 라디오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금성사는 종업원이 753명으로 5위에 올랐다(김대래, 경제개발 개시연도의 부산 제조업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제』 110, 2019, 407쪽).

114 Airgram from USOM/Korea to ICA/W TOICA A-2979, 3/16/60, subject: Monthly Highlight Report, February 1960(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147); Fifth Quarterly Report, January 1, 1960 through March 31, 1960 to USOM, ROK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ICA/W from Engleman Radio Contract, ICA/W 638, J.A. Goerss, Senior Contract Member on Improvement of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s Project 89-92-438(RG 469, Korea Subject Files, 1950-61, Box 154).

그 회사에 비상식량을 제공한 셈이겠지만, 사업을 해나가는 데 갖춰야 할 다른 조건들을 충족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미국인 전문가는 금성사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수신기 생산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듯하다. 그래도 액수가 적지 않았으므로, 금성사는 이 달러 자금으로 라디오 수신기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미국 측은 6개월 연수 훈련을 받을 라디오 엔지니어를 선발하였다고 한다.

1960년 4월 초 유شم 자원개발국은 금성사는 달러 불하 프로그램의 지원만을 받았을 뿐이지만, 자력으로 산업을 개발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며, 부산지역 산업시찰에 나서는 매카나기(W.P. McConaughy) 미국대사의 방문 기업으로 추천하였다.¹¹⁵ 일 년 반 동안 유شم의 시청각과 과장직을 수행하며 저가 수신기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해리 카는 1960년 10월에 이임하면서 라디오 방송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신속하고 최고의 수단이라고 하였다.¹¹⁶ 한국에서도 저가 수신기 생산이 가능하고, 한국정부가 배급과 판매를 돕는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국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경우에 유شم이 해야 할 일은 약간의 조건과 알선뿐이라고 하였다. 적어도 라디오 수신기에 한하여서는 미국 원조기관이 크게 할 일은 없으며, 한국정부의 지원 아래 기업의 능력이 생산과 판매를 해낼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는 판단이었다.

나. 수신기 보급의 확대

1961년 1월 미국공보원은 금성사가 수신기 보급대수를 80만 대로 증가시키며,

115 Memorandum, from Acting Chief, RD-CD to Mr. F.L. Mayer, Deputy Ass't. Dir. RD, April 8, 1960(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157).

116 Airgram, from Seoul to ICA, 10/25/60, subject: End-of-Tour Report -Control No. U-153(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147).

매체로서 라디오의 중요성을 높일 것이라고 본국에 보고하였다.¹¹⁷ 라디오 수신기 생산의 선두주자였던 천우사는 1960년대 초반 무역업으로 되돌아갔으나, 금성사는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해외로 진출해 나갔다. 1962년 봄 라디오 18대를 최초로 동남아시아에 견본 수출하였고, 175만 달러어치를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울¹¹⁸ 만큼 팔목하게 성장하였다. 몇 개월 뒤에는 수신기 수요가 월 15,000대에 이르렀고, 트랜지스터와 진공관식을 합하여 10여종이 출시되었다.¹¹⁹ 금성사는 이렇게 성장하는 국내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였고, 미국에 5,000대 수출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미군 PX에 4,000대가량을 납품할 만큼 성장하였다.¹²⁰ 그렇다고 하여도 300만 달러 이상을 시설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채산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신문이 우려할 만큼, 과감하게 큰 걸음을 내디뎠다. 라디오 수신기와 부품의 수입량과 금액의 변화를 보면,¹²¹ 라디오 수신기 관련 수입, 제작, 판매 등 보급의 경향을 파악하고, 금성사 제품의 수입대체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금성사의 발전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미국 정부기관이 저가 수신기 생산과 보급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는 충분하였다. 관세를 비롯한 한국의 정책과 제도는 수신기 가격을 높였고, 전자산업은 거의 황무지와 다름없

117 USIS Country Assessment Report, NO. 28, January 30, 1961, p.27(RG 306, Foreign Service Despatches, 1954-65, Asia, Box 2).

118 라디오처녀수출. (1962.5.6). 『경향신문』, 3.

119 라디오. (1962.11.8). 『조선일보』, 8.

120 1959년 12월 USOM 기술협력실의 보고서는 한국인이 만든 교류 2밴드 수신기가 미군 PX에서 21.50달러에 팔린다는,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을 주목하였다(Airgram, from USOM/Korea to ICA/W TOICA A-2220, subject: Highlight Report of Audio-Visual Division for December, 1959(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147). 이 제품은 멋진 플라스틱 라디오통으로 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금성사가 갖 출시한 라디오 수신기일 것이다.

121 『금성사이십오년사』, 128쪽의 〈표 II-6〉 전기기계기구 수입실적. 금성사만의 실적은 아니겠지만, 1959년에 수신기 완제품과 부분품 수입은 158톤 55만 7천 달러로 최고점에 도달하였고, 1962년에는 147톤 36만 1천 달러로 떨어졌다. 아마도 시간이 흐를수록 완제품 수입은 국산제품으로 대체되었고, 대신 부품수입이 증가하였다고 생각된다.

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세계 최빈국이라고 일컬을 만큼 빈약한 경제력이었다. 도시를 중심으로 수신기 판매가 늘어났지만, 인구 다수를 차지하던 가난한 농민층이 라디오 방송을 즐기기로 요원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의 대한 원조 축소로 심각해진 불경기는 60년대 초까지 지속하였다. 또한 5·16쿠데타가 일어나자, 그렇지 않아도 침체한 부산지역의 경기는 더욱 악화하여, 금성사의 모기업인 락희화학의 매출이 40% 떨어졌고, 6월 20일에는 금성사가 확실하다고 보이는 전자기기 공장이 종업원 25%를 해고하였다.¹²² 이처럼 금성사는 1961년 중반까지만 하여도 부진한 판매로 적자를 면할 수 없어 존폐까지 거론되었다(금성사, 1985, 166~168, 170~1쪽; LG, 1997, 104~5쪽). 금성사는 그 원인을 기존 시장을 지키려는 라디오상의 과도한 요구라고 보았다. 하지만 서울의 이세아백화점 라디오상점 사장은 국산 라디오는 성능이 비교적 나쁘는데, 값은 비싸다고 평하였다.¹²³ 객관적으로 보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국산품임에도 판매가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외제 수신기의 수입도 국산품의 생산과 보급을 저지하였다. 4·19혁명 직후 금성사는 4-5구 수신기의 수입을 7월 1일부터 금지해달라고 상공부에 청원하였다.¹²⁴ 플라스틱 재질 피복전선, 진공관 소켓, 선풍기, 코일 등도 금지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금성사가 제작하는 전기제품도 다수였던 것 같다.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금성사 수신기가 미군 PX에서 가격, 외양, 품질 면에서 일제나 미제와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외국산 수입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독점을 누릴 만한 제품은 아니라고 보았다. 밀수품은 더

122 Foreign Service Despatch,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the Department of State, No. 7, July 3, 1961, subject: Business Conditions in Pusan and Taegu(RG 84,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62, Box 28).

123 특정외래품 관급법안으로 파문. (1961.4.30). 「동아일보」, 3.

124 Foreign Service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the Department of State, No. 562, April 22, 1960, subject: Fortnightly Economic Review No. 2(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Internal Affairs of Korea, 1960-1963, File 895B, 895B.00/3-2860-12-3060).

욱 심각한 장애였다. 장면 정권은 1961년 5월 4일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제정하였고, 군부정권은 그에 따라서 판매금지품목을 지정 고시하였다. 여기에는 트랜지스터라디오, 라디오 소켓 키트가 포함되었고, 긴급경제시책세목에는 강력히 시행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추가되었다.¹²⁵ 그리고 밀수품 단속을 한층 강화하였고, 미군도 이에 호응하여 PX와 군사우편을 통한 밀수를 막았다.¹²⁶ 그러나 외제 라디오 수신기가 대표적인 금지대상이라는 인식과 엄한 금지 조치에도 판매를 실질적으로 막기는 어려웠고, 정부정책을 변경해야 할 상황도 일어났다. 그해 11월 금지품목을 재분류하면서 6구 이상의 진공관 라디오 수신기는 국산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가격이 앙등하였으므로, 금지품목 삭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¹²⁷ 정부의 국내 산업보호 정책은 수입품과 부정품을 절대 엄금할 수는 없었더라도, 금성사 등 라디오 생산업체에 도움이 되었다. 금성사 공장을 방문한 미국대사관의 상무관은 9월 1일부터 시행된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 수입품이나 밀수품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덕분에 금성사가 이듬해 초에는 라디오 생산을 두 배나 늘렸다고 보고하였다.¹²⁸

또한 군사정부가 1962년 7월부터 전개한 농어촌 라디오 및 앰프 보내기 범국민운동 덕분에 수신기 판매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라디오 보급운동은 이승만 정부 때 시작되었다. 공보실은 KBS 방송국에서 천우사의 5구 수신기를 소매보다 약 6,000원이 싼 도매가격으로 공무원에게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1957년 말까지 판매된 것은 모두 약 200대에 불과하였다. 금융

125 수입금지품목. (1961.6.1). 「경향신문」, 2; 긴급경제시책요강전문. (1961.7.18). 「경향신문」, 2.

126 Foreign Service Despatch,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79, August 22, 1961, subject: Minutes of Country Team Meeting, Thursday, August 17, 1961(RG 84,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2-1963, Box 28).

127 특정외품품종한계확정. (1961.11.28). 「동아일보」, 1.

128 Embassy Despatch No. 319, February 19, 1962, Pusan and Taegu Revisited: Another Look at Local Business Conditions(RG 84, Seoul Embassy, General Records, 1953-55, Box 16).

조합연합회에서도 몇 년 동안 농민에게 약 20,000대의 전지용 수신기를 판매하였다. 그렇지만 금융조합연합회가 농업은행으로 전환된 다음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장면 정권도 라디오 수신기의 무상보급을 지속하였다. 방송관리국이 금성사 트랜지스터라디오를 대당 약 30달러씩 2,500대를 구매하여 전력공급이 되지 않는 마을에 보급하였다.¹²⁹ 하지만 빈곤한 사회에서 고가의 수신기를 구매하여 기증하는 운동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군사정부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직원의 월급 1%를 현금으로 각출하도록 함으로써 2개월 만에 3,505대의 라디오 수신기를 모을 만큼 ‘비자발적 기증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였다.¹³⁰ 한 연구가 운동 결과로 제시한 보급대수를 살펴보면, 62년에는 금성사가 기증한 라디오 5,000대를 포함하여 약 24,000대, 63년 1~7월까지 농협이 판매한 14,220대였다(김희숙, 2016, 441~2쪽). 여기에서 보급 대수와 농협 “판매”의 성격, 그리고 다른 단체가 기증한 사실의 누락 등으로 연구 결과에 의문이 크지만, 12개월 동안 최소 38,000여 대가 농어촌에 기증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일단 인정한다. 그렇지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의 성과는, 보급률이 큰 폭으로 올라가던 이 시기에 일반인이 구매할 수신기 대수와 비교하면, 대세를 바꿀 만큼 대단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금성사가 1962년 한 해에만 판매한 대수는 137,654대였다(금성사, 1985, 188쪽 <표 II-15>). 위 연구가 제시하는 24,000대는 17.4%이며, 금성사가 기증한 것을 빼면, 13.8%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런 기증 운동과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의 금성사 방문¹³¹ 같은 이벤트의 효과와 의의는 라디오 보급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점

129 Airgram, from USOM/Seoul to ICA/W TOICA A-2753, 2/11/61, subject: Communications Media Quarterly Report: U-243(RG 469,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153).

130 공보부, 국방관 2801, 발신 공보부장관 이원우, 수신 내각사무처장, 1962년 9월 18일, 제목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의 라디오 및 앰프 보내기 범국민운동 참여계획 차관회의 보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335).

131 유희공정운전토록. (1962.5.20). 「동아일보」, 1.

에 있었을 것이다.

보내기 운동으로 구매한 모든 수신기가 금성사 제품은 아니겠지만, 금성사는 쌓였던 재고까지 품절할 정도였다. 13만여 대를 판매한 1962년 말 순이익이 2,873만여 원에 달하였고, 판매 호조에 따라서 증자, 시설 확충, 조직 보강 등이 이루어졌다. 금성사는 자립의 길로 확실히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¹³² 이듬해에는 금성사가 생산한 것이 대부분 차지하지만, 삼양전기와 태양전기 등도 생산에 나섰으므로, 한국 수신기 생산능력이 약 40만 대에 이르렀다.¹³³ 금성사의 사업 성공이 라디오 수신기 생산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지만,¹³⁴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며, 더 나아가 한국 전자산업의 토대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드디어 1966년 12월 전자공업은 ‘수출특화산업’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대대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¹³⁵ 한국사회에 라디오 수신기의 보급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김영희, 2009, 321~4쪽). 특히 생산 쪽에서 본다면, 천우사는 국내생산을 시작하였고, 금성사는 라디오 수신기 산업을 개척해 나가며 한국전기전자산업을 주도하고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정책과 소비자 대중이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으나, 국가시책 전파와 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정책의 선전, 흔히 공보, 홍보, PR, 심리전 같은 용어로 지칭된 정책이 강력히 시행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132 『금성사이십오년사』는 이 시기를 정착기로 규정하였다.

133 경기타진. (1963.6.6). 「경향신문」, 4.

134 금성사는 1962년 초 전기기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외자를 신청한 회사 6곳 가운데 한 곳이었으며, 그 계획에는 라디오 수신기는 보이지 않지만, 적산전력계와 통신기계 생산에 필요한 자금 1,229,000달러를 서독에서 차관하기로 이미 각서를 교환하였다고 한다(경제레뷰. (1962.2.21). 「경향신문」, 2). 당시 금성사는 전화기와 선풍기도 등도 생산판매하고 있었다.

135 전자공업 수출산업으로 전환. (1966.12.5). 「매일경제신문」, 1; 생산 수신기 절반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던 금성사는 “소리로 맺어지는 자유의 세계”라는 냉전의 냄새가 나는 광고를 냈다(광고. (1963.9.26). 「경향신문」, 2; 광고. (1964.3.24). 「경향신문」, 3).

그럼에도 수신기의 생산과 보급, 기업의 성공을 이끌었던 주인공은 라디오 방송을 듣고자 하였던 대중이었다.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고가의 수신기를 구매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구매자인 일반 국민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1965년 12월 주한 미국대사관 민사관은 한국은 일본과 대만을 제외하고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라디오가 빨리 보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³⁶ 문화공보부의 통계에 따르면, 방송국은 KBS 26개국, CBS 5개국, MBC 5개국 등 40개국이 넘었다. 최근 3년 동안 민영방송 3곳이 허가를 받음으로써 한국인의 청취와 방송국의 편성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약 100만대의 수신기와 80만대의 유선방송시설이 있었다. 전체가구의 38%, 1,300만 명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던 셈이었다. 그리하여 라디오가 소식과 정보의 일차적 원천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황금시간대의 광고는 프리미엄을 지불하여야 하였다. 이로써 라디오는 진정한 대중매체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공보원은 방송은 상대적으로 선전 효과가 낮다고 본 선전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였다.

6. 맺음말

지금까지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전반까지 라디오 수신기 생산과 보급 실태를 살펴보았다. 냉전 상황에서 라디오 방송을 대공 심리전과 대민 선전 수단으로 중시하였던 한·미 정부기관의 생산과 보급 정책도 함께 고찰하였다. 특히 미국 원조기관과 미국공보원이 함께 추진하였으나, 별 성과 없이 종료된 저가 수신기 프로젝트를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 민간부문이 수

136 Field Message, from USIS Korea to USIA Washington, NO. 12, Dec. 2, 1965, subject: Development of USIS Radio and TV Programs in Korea(RG 306, IAF, 1963-1966, Lot 67D528, Box 55).

신기의 생산과 보급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이다. 기업이 수신기의 조립에서 시작하여 대량 생산을 이루어냄으로써, 수신기 보급률은 급속히 높아졌다. 또한 일반 국민은 비싼 수신기를 구매함으로써 한국전자공업 발달의 초석을 쌓았고, 라디오 방송을 진정한 대중매체로 변화시켰다. 아래에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의의를 덧붙인다.

첫째, 한·미 정부는 수신기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반공, 친미, 국민통합, 정권강화, 국가정책 선전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였다. 정전 후 이승만 정부는 대북 심리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송신기능을 갖춘 방송시스템을 마련하였고, 미국 역시 동아시아에 거대한 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산국가에 맞서 전파전을 전개하였다. 문제는 수신기가 부족하여 선전방송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었으므로, 양국 정부는 남한 주민에게 저가 수신기를 널리 보급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1950년대 중반부터는 수신기 보급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국내생산이 되기 전까지는 수입품 가격은 비쌌고, 미군 PX에서 유출된 제품이나 일제 밀수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방송이 대중문화를 이끌게 되자, 대중의 수신기 구매욕은 강해졌고, 그에 따라 시장은 확대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보급된 수신기가 100만 대를 돌파한 때는 1960년대 초반, 시점을 특정한다면 1963년이였다. 이로써 60년대의 '라디오 전성시대'가 개막하였고, 라디오 방송이 현대적 대중매체가 되었다. 그리고 보급 확장에 판매된 대다수 수신기는 국산이었으므로, 라디오 방송의 청취자이자 수신기 구매자가 한국전자공업의 토대를 제공한 셈이었다.

셋째, 한국정부 일각에서는 오래전부터 국산 수신기를 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자체 생산은 어렵다는 의견이 한층 우세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계획이나 지원정책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였다. 다만 외 국산 수신기를 소량 도입하여 민간에 보급하는 노력을 몇 차례 하였을 뿐이었다. 오히려 국내산업 보호와 재정수입을 앞세워 수신기 생산에 필요한 수입 부

품과 제작기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수신기 생산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넷째, 미국공보원은 대한선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저가 수신기 대량보급의 중요성과 국내생산의 시급성을 제기하였다. OEC 같은 원조기관은 처음에는 이에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중반에는 부품수입에 필요한 원조달러의 불허를 허가하였다. 더 나아가 새로운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력 수준에 맞춘 저가 라디오 수신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부품, 인력, 기술 같은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한데다가, 한국 기업이 외국산 부품으로 조립생산하는 수신기는 고가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한국에서 수신기의 대량 생산과 판매는 시기상조라고 본 미국정부기관은 프로젝트를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다섯째, 천우사는 1957년 하반기 수입부품으로 조립한 진공관식 라디오 수신기를 한국에서는 최초로 대량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듬해 여름에는 필립스가 아닌 “Chunu”라는 자체 상표를 붙인 제품을 생산하여 출시하였다. 대부분 수입부품을 사용하였고, 국내산 부품은 단순한 것에 지나지 않았어도, 공장에서 대량으로 제작한 최초의 국산 라디오 수신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 노력 끝에 트랜지스터라디오까지 조립생산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기관이 저가 수신기 가격으로 제시한 상한선 10,000환을 초과하였으므로, 본격적인 생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재무부는 외국산 수입부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국내시장이 좁았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도 없었다. 결국 천우사는 수신기 생산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웠고, 1960년대 초반 보세기공수출로 전환하였다.

여섯째, 1958년 10월 설립된 금성사는 약 1년 뒤 라디오 수신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천우사보다 훨씬 큰 공장에서 300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대량생산하였다는 점에서 산업적인 의의가 컸다. 초기제품의 국산화율은 천우사 것보다 월등히 높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판매와 광고 전략에 의하여

최초의 국산 라디오로 인정받았다. 수신기 수요가 전보다 많아졌으나, 금성사 역시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제조업에 대한 경영 의지가 강하였으므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로 난관을 극복해 갔다. 또한 정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억제와 밀수방지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덕분에 발전의 기반을 닦았고, 더 나아가 한국전자산업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한국 라디오 방송이 대중매체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신기의 대량 생산과 보급의 초기단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토대로 삼아서 라디오 방송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문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한·미 정부기관이 반공과 친미와 정권의 효과적 선전을 위해서 수신기 생산과 보급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대중문화에 치우친 방송사 연구에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소이다. 최초 국산 라디오는 금성사가 아닌 천우사가 생산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을 근거 사료와 함께 내놓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라디오 수신기뿐 아니라 텔레비전 수상기, 전화기, 전화교환기, 유무선 전신장비 등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생산이 한국전자산업을 개척하고 수출을 선도한 역사로 관심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기초로 삼을 만한 연구결과를 얻기는 하였으나, 자료를 미국정부문서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약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는 한국정부, 기업, 개인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온전한 역사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정부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64). 〈한국통계연감〉 제11회.

경제기획원(1967). 〈한국통계연감〉 제14회.

www.kci.go.kr

공보부(1962). <전국국민여론조사결과보고서>. 서울: 공보부.
 공보부(1962).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의 라디오 및 앰프 보내기 범국민운동
 참여계획 차관회의 보고,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335.
 공보처(1957). <관보> 1811호.
 공보처(1960). '전성천 공보실장 최현길 경기도지사에게 라디오 기증' 사진, 국가
 기록원 관리번호: CET0026279.
 국회사무처(1958). 제3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8호(부록).
 내무부 통계국(1960). <대한민국통계연감> 제7회, 대한민국 내무부.

<미국정부자료>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Internal Affairs of Korea,
 1960-1963, File 895B, 895B.00/3-2860~12-3060.
 RG 286, USAID/ Communications Resources, Subject Files;1953-1967, Box 1.
 RG 306, Action copies of Telegram, Despatches, OMs, Incoming & Outgoing for
 Far East countries 1956, Box 137.
 RG 306, Foreign Service Despatches, 1954-65, Asia, Box 2.
 RG 306, IAF, 1963-1966, Lot 67D528, Box 55.
 RG 306, Inspection Report & Related Records, 1954-1962, Box 6.
 RG 306, IOP/RP, Eastern Europe thru NE, SA, Africa, 1954-62, Box 354.
 RG 306, IOP/RP, Lot 67D628, Latin America and Canada thru Far East, 1954-
 1956, Box 351.
 RG 306, Master Budget Files, 1953-1964, Box 11.
 RG 306, Misc. files of IBS, Director's Office, Lot. 56D595, Box 202.
 RG 306, Office of Policy and Research/Program Analysis Staff, Records relating
 to World Wide Radio Developments, 1954-1963, Box 7.
 RG 306, Office of Research, Country Project Correspondence, 1952-63, Box 13.
 RG 306, Special ("S") Reports of the Office of Research, 1953-63, Box 9.
 RG 306, Voice of America, Lot 55D209, Box 15.
 RG 319, Office of the Chief of Civil Affairs, 1946 - 1965, Box 18.
 RG 331, Civil communication Section, Decimal & Subject file, 1945-51, Box

3163.

- RG 338, Classified Command Report Files(1 Jan.-30 Dec. 1952), Box 5753.
RG 469, ICA, Mission to Korea. Executive Office, Central Subject Files, 1950-1956, Box 24, 76, 77, 78, 87, 91, 116, 118, 147, 153, 157.
RG 469, Office of Far Eastern Operations, Korea Subject Files, 1953-59, 1955, Box 4, 36, 111, 154.
RG 469, Office of the Far Eastern Operations, Korea Division, Box 4.
RG 554, General Correspondence, 1951-1952, Box 10, 22, 23.
RG 59, Central Decimal Files, 1950-1954, Box 2240.
RG 84,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62, Box 28.
RG 84, Seoul Embassy, General Records, 1953-55, Box 16.

〈신문〉

〈경향신문〉, 〈국제신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

〈논저〉

- LG 50년사 편찬위원회(1997). 〈LG50년사〉. 서울:LG.
금성사(1985). 〈금성사이십오년사〉. 서울:금성사.
김대래(2019). 경제개발 개시연도의 부산 제조업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 110집, 375~415.
김영희(2009). 〈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1880~1980〉. 서울:커뮤니케이션 북스.
김해수(2016). 〈아버지의 라디오〉. 서울:느린걸음.
김희숙(2016). 라디오의 정치: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 〈한국과학사학회지〉, 38-3호, 425~451.
유기덕(1992). 해방후 민간무역에 관한 연구 - 천우사를 중심으로, 〈경영사연구〉 7집, 157~195.
윤상길(2011a). 1960년대 한국 라디오 테크놀로지의 ‘부락화’, 한국방송학회(편). 〈한국방송의 사회문화사: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206-248), 서울: 한울아카데미.

www.kci.go.kr

윤상길(2011b). 1960년대초 한국 유선라디오 방송제도의 성립과 발전. <한국방송학보>, 25-1호, 159~204.

주창윤(2015). <한국 현대문화의 형성>. 서울:나남.

한국방송공사(1977). <한국방송사>. 서울:한국방송공사.

<인터넷 자료>

e영상역사관(<http://www.ehistory.go.kr>)

www.pakratz.com

www.radiomuseum.org

최초투고일 2019. 08. 25

논문수정일 2019. 10. 12

게재확정일 2019. 10. 23

Abstrac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Radio Receivers in Korea during the Cold War Era

MBC as public broadcasting

Chang, Young Min

Professor, Division of Media and Advertizing, Sa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stribution and production of radio receivers from the mid-1950s to the early 1960s. This giv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arly stages of the development into mass media of radio broadcasting and electronic industry. Receivers were rapidly deployed in the late fifties and exceeded one million in the early sixties. In particular, Chunusa made the first mass production of receivers in Korea using imported parts in 1957. The following year, even simple domestic parts were used, Chunusa manufactured and sold receivers with the company's English name "chunu". Although the main parts are from foreign countries, it can be said to be the first domestic radio receiver. Founded in October 1958, Kumsungsa has continued to develop and manufacture receivers, leading the mass distribution and electronics of receivers. Korean-American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the USIS in Korea, emphasized the necessity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receivers, as radio broadcasting was regarded as a propaganda medium for anti-communism, pro-US, and regime reinforcement. OEC also relaxed the dollar constraints on importing foreign parts and promoted low-cost receiver project. It was also intended to bring receiver production into a new industry. However, due to the excessive cost of importing parts such as tariffs, Chunusa and Kumsungsa could not lower the retail price of the receiver to less than 10,000 Hwan. Eventually, US agencies abandoned the plan to mass produce and distribute low cost receivers. Therefore, South Korea's receiver production, and the electronics industry that originated from it, did not receive much support from the US and ROK governments, and took the first step with almost self-help.

KEYWORDS

Broadcasting • Radio • Receiver • Chunusa • Goldstar • Electronic Industry • Cold War • Propaganda • USIS • OEC • USOM

www.kci.go.kr